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丁玲의 《莎菲女士的日记》 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李 善 慈

2018年 8月

丁玲의 《莎菲女士的日記》 研究

指導教授 趙 洪 善

李 善 慈

이 論文을 文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8年 6月

李善慈의 文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審 查 委 員

審 查 委 員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8年 6月



A Study on Mrs. Sopsis Diary

Seun Ja Lee

(Supervised by professor Hong Sun Ch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Literature

2018. 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Sheng Shik Cho

Eun Hee Kim

Hong Sun Cho

2018. 6.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적 요

1920년대 중국 문단에는 많은 여류작가들이 출현하였는데, 이전의 중국 문학사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문학 현상이었다. 여류작가들은 자신의 체험과 사유, 새로운 흐름을 따라 여성의 내면 심리를 잘 포착하여 서술하였고 1920년대의 중국 문단을 풍성하게 하였다.

딩링은 5·4 운동 시기를 지나 1920년대 후반 중국 문단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신진 여류작가로 급부상한 작가이다. 딩링(丁玲)의 작품 《쓰피 여사의 일기》는 당시를 사는 중국 젊은 여성이 품고 있던 내적 고민들을 작품 속에 잘 담아내었다는 평가를 받는 소설이다.

당시 함께 활동하였던 빙신(冰心), 펑위엔권(馮沅君), 루인(廬隱) 등의 작가들이 구 전통사회의 속박에서 벗어나 여성의 자유와 가사의 해방을 주로 다루었다면, 딩링은 계몽에서의 흐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금기시되었던 여성의 육체와 욕망을 소재로 억압받던 여성들의 내면세계를 표현해 내어 정면으로 중국 전통사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쓰피 여사의 일기》가 그 대표작으로 꼽힌다. 일기의 주인공 쓰피는 집을 나와 北京의 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학생이다. 집을 나오는 것, 즉 가출은 5·4운동 이후 문인들이 주목한 하나의 화두였는데 이것은 1918년 후스(胡适)가 입센의 《인형의 집(玩偶之家)》을 번역하여 교묘히 신문학의 탄약으로 썼다.

5·4시기 계몽가들은 여성들이 봉건적인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연애와 결혼을 쟁취하기 위해 집에서 과감히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여성의 가출은 하나의 새로운 유행을 불러 일으켰다. 딩링 자신 역시 대가족의 틀에서 벗어나 착한 아가씨를 포기하여 반항적 젊은 여자로 나선 여성 중 한명이었다.

쓰피는 이런 구시대적 틀에서 벗어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은 없으나 죽음을 예상하는 환자였다. 신체는 병을 지니고 있지만 정신은 여전히 갈망하는 영혼으로 처절한 고통 속에서 번뇌하고 방황하는 여성상을 적절히 표현해 낸다. 자유연애의 쟁취보다는 자유연애의 실질과 내용에 대하여 중국식 노라의 고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움을 표현한다. 쓰피의 걸을 돌보는 위광도 자유연애 중이고 윈 언니 역시 그렇다. 쓰피는 자

유연에 자체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작가 본인의 내적 갈등을 쏘피에서 표출함으로서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내고 자신을 마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자아를 발견한다는 것은 타율적 관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보편적 이성과 관습을 바꿀 수 있는 동력으로서 개개인의 감성과 욕망을 중시하는 것이다. 근대인이 지녀야 할 과제 즉 여성해방의 추구가 아니라 자아를 발견한다는 것이 쏘피 일기의 사상적 추구이다.

Abstract

In the 1920s, many Chinese female writers appeared in the Chinese literature, a new literary phenomenon that was not seen in previous Chinese literary history

The female writer framework that has got the aura of the new name is the experience and reason of new flow.

Following the new trend, women's inner psychology was well captured and described, and the 1920s Chinese literature was enriched.

Dingling has emerged as a new female writer who has greatly influenced the Chinese literature in the late 1920s through the period of the 5.4 campaign, and Dingling's work, 『Diary of Mrs. Sopi』, is a collection of Chinese young women's lives it is a work.

If writers such as Bingxin, Pengyuanjun, Luin, who had been working together at the time, deviated from the bondage of the old traditional society and dealt mainly with women's freedom and liberation from housework, Dingling went a step further from the enlightenment women's movement, Expressing the inner world of the women who were oppressed by the material and challenging the traditional Chinese society in front.

Mrs. Sopi's diary is considered a representative work against it in front of it. Sopi's diary Sopi is a student living in a house in Beijing out of her house. The exit from the house, that is runaway, was a topic of concern to writers after the 5.4 movement, which was related to the publication of the house of Ibsen's house in 1918 by Hussein. At that time, Huse was using the house of the doll to manipulate it as an ammunition of journalism.

5.4 the enlightenmentists argued that women should move out of house to get free love and marriage out of feudal bondage, and thus the runaway of women caused a harmful fashion. Dingling herself also escaped from a large family, it was one of the women who gave up and became a rebellious young women.

Sopi escaped from this old age, It was a woman who was not worried economically or was expecting to die. The body has a sickness, but the spirit is still a longing soul, and it properly expresses a woman who wanders in pain, It is completely free from troubles even if there is a Chinese style nora about the substance and contents of free love. Sopi Yufang who cares for her side is also free and Win sister too. Sopi questions about free love itself.

By expressing the inner conflict of the artist himself in Sopi, He created a space where he can draw his own portrait and face himself. I feel the sense of crisis of self-recognition

in an unsafe atate. It emphasizes individual sensitivity and desire as a power to change universal reason and custom. It is the ideological pursuit of the Sopi diary that the discovery of the self, rather than the quest for the emancipation.

目 次

제 1 장 서론	1
1) 연구 동기	1
2) 덩링의 연구 성과와 한계	3
제 2 장 작가와 작품 소개	7
1) 작가 덩링의 일생	7
2) 《莎菲女士的日記》의 줄거리	11
제 3 장 《莎菲女士的日記》인물 분석	12
1) 쏘피	12
一. 쏘피 소개	12
二. 쏘피의 성격	14
① 강한 자존심	15
② 과감한 본능 추구	18
③ 연애지상주의자	21
④ 갈등하는 자아	23
三. 쏘피와 丁玲, 그리고 丁玲의 부친	26
① 덩링의 부친	26
② 《쏘피 여사의 일기》에서 보이는 부친의 형상	30
2) 凌吉士와 馮雪峰	34
3) 葦弟	39
제 4 장 《쏘피 여사의 일기》의 주제분석	42
1) 자유로운 性愛 표현	44
2) 자아실현	47
제 5 장 결론	49
參考文獻	52

제 1 장 서 론

1) 연구 동기

중국 현·당대 문학사상 덩링(丁玲 1904-1986)처럼 논쟁이 많았던 여류작가도 없다. 덩링에 대한 평가는 큰 물의를 일으키며 극단적으로 기울어졌는데, 어느 날 극찬의 호평을 받다가 갑자기 혹평으로 바뀌어 바닥으로 추락한다. 상승과 하락을 수 없이 겪으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야했던 여류작가들 중의 대표적인 작가라 볼 수 있다.

오랜 시간동안 독창성이 있는 인물 형상이나 그 작품의 문학사적 위치를 막론하고, 그녀의 사상에 대한 추측은 모든 연구자들의 끊임없는 논쟁거리가 되어왔다.

무엇 때문에 중국 현·당대 문학사에서 덩링이 가장 많은 고난을 당했을까? 고난과 억압 받은 시간이 가장 긴 여류작가 덩링이 생존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거의 반세기 동안이나 논쟁은 끝이 없었다. 70여년 넘게 옳고 그름의 평가를 했지만 결론을 내릴 수도 없었다. 무엇 때문에 견해의 차이가 천차만별인지, 덩링에 대한 평가가 논쟁의 소재가 되고 심지어 대립상황에 까지 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내용들에 대하여 짚어보기 위해 《쓰피 여사의 일기》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덩링의 일생을 보면 세 번의 중요한 시기가 있었다.

최초의 중요한 시기는 1928년부터 1936년 사이였다. 1928년 덩링은 소설 《쓰피 여사의 일기》로 문단에 등단하여 큰 충격을 주었고, 그로부터 덩링에 대한 반응이 서로 엇갈리기 시작하였다. 그 후 후예핀(胡也頻)의 희생에 의해 덩링은 부르주아 계급의 지식여성으로서 좌익문학운동에 뛰어들어 좌익문단의 우수한 청년작가가 된다. 이 시기 덩링의 창작활동은 혁명, 공업과 대중에 대해 쓴 《물(水)》이라는 새로운 소설로 연결되었다.¹⁾ 1933년부터 덩링은 남경에서 3년 동안 국민당에 의해 감금되었다. 정신적으로 큰 재난을 당하는 동시에 외부에서는 그녀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1) 何丹仁; 《关于新的小说的诞生-丁玲的'水'》. 袁良骏编<丁玲研究资料>, 天津人民出版社 1982年, 3月版, 제 246쪽

덩링이 이미 살해당하였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그녀가 이미 ‘혁명을 배반’했다고 전했다. 그래서 덩링의 위상은 의문 속으로 떨어졌고 그 후로도 역사상 반역자라는 의구점이 쭉 그녀를 따라 다녔다. 그녀의 작품도 국민당 통치하에서 ‘금서’가 되었다.

두 번째 중요한 시기는 1936년에서부터 1948년 연안문예좌담 이후까지였다. 1936년 공산당의 도움으로 덩링은 남경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향해 날아가 공산당의 근거지인 연안에 도착하였다. 국민당 통치구에서 도망 나와 공산당 근거지로 간 최초의 작가가 된 덩링은 모택동, 주은래 등 공산당 지도부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모택동은 덩링을 위하여 <임강산(臨江山)>이라는 사(詞)를 지었는데, “어제의 문학 아가씨에서 오늘의 장군으로 변화하였다”²⁾며 칭송하였다. 이런 일은 공산당 근거지에서는 유례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연안문예좌담 후 덩링은 《3·8절 유감(三八節有感)》, 《병원에서(在醫院中)》, 《내가 안개마을에 있을 때(我在霞村的時候)》³⁾ 등의 작품을 썼는데, 이 작품들은 공산당 근거지의 어두운 면을 건드린 작품으로 비판을 받았다. 그로부터 덩링은 다시 추락하였고, 또 하나의 ‘반당’이라는 딱지가 붙었다.

세 번째 중요한 시기는 1948년부터 1979년까지 긴 시간이었다. 1952년 3월 《태양은 쌍간 강가를 비추다(太陽照在桑乾河上)》를 출판하여 스탈린 문학상 2등을 수상하였는데, 덩링은 이 작품으로 국내외의 문학계에서 칭송을 받았고 작가 본인도 이를 자신의 대표작으로 여겼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덩링은 문학계 요직인 문학공작사협회 부주석과 문예보(文藝報) 편집장을 맡았다. 1951년에는 중앙문학연구소 소장과 중앙선전문예처 처장을 맡았고, 1952년에는 《인민문학》 편집장을 맡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1955년 8월에 한 차례의 재난이 갑자기 닥쳐왔다. 그녀는 ‘덩링 반당 집단의 보스’로 비판을 받아 1958년 헤이룽장 베이다황(北大荒)으로 하방(下方)되어 소 외양간에서 근무를 한다. 덩링의 일생 중 ‘소리 없이 자취를 감춘 시기’가 20여 년간 이어진다.

이런 길고 긴 세월 속에서 작가 덩링은 문단에서 흔적 없이 자취를 감췄고, 새 작품들도 모두 시중에서 찾아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1979년 이전의 작품들도 시중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 ‘四人幫⁴⁾이 물러난 후 비로소 덩링의 명예와 당적이 회복되

2) “昨天的文学小姐到今天的武将军的变化”

3) 김미란 번역 《내가 안개마을에 있을 때》 창비세계문학 6, 2012년

4) 마오쩌둥이 사망한 1개월 후인 1976년 10월 华国锋이 주도한 쿠데타에 의해 江青, 张春桥, 姚文元, 王洪文的 네명이 체포된 사실을 ‘사인방’이라는 경멸적인 용어로 표현하였다.

고, 인민들의 평판도 회복되어 새로운 시기에 들어가게 된다. 덩링은 굴곡진 경험으로 중국과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으며, 그녀의 전기적 과정은 덩링 연구과제의 중심이 되었다. 또한 덩링은 중국과 세계 문단에서 빈번하게 주목을 받아 풍운의 인물이 되었다. 1986년 3월 4일 덩링의 죽음으로 중국 문학계의 한 거장은 사라졌다. 이것은 덩링 개인이 세상에서 없어진 것일 뿐, 그녀에 대한 논쟁이 끝난 건 아니었다.

세 차례의 중요한 시기를 겪는 동안 인민들의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덩링이 나타났다. 전문적인 입장의 문학연구도 덩링 개인과 작품에 대한 평가에 따라 기복을 이루었다. 다른 작가들과는 달리 해방 이전의 작품부터 차례로 평가를 받으며, 해방 후의 작품도 여전히 논쟁을 벗어날 수 없었고, 다른 작가들과는 전혀 다른 창작의 자주적 성향은 정치까지 좌지우지하면서 또 다른 비교를 당하였다.

중국 문학사상 이런 과정을 겪은 작가가 또 있을까? 그녀의 문학적인 재능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그녀의 일생 자체가 한편의 소설로 쓰여 지기도 한다. 많은 어려운 과정 속에서 탄생한 작품들은 당연히 문학 연구학도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많은 연구가 이어지게 되었다.

2) 덩링의 연구 성과와 한계

현·당대 문학사상 독특한 개성이 있는 작가로서, 덩링은 사후에도 끊임 없는 논쟁이 이어졌다. 덩링의 창작활동은 독특한 예술성과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녀의 작품에 대한 연구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어떤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덩링의 창작 활동과 덩링에 대한 연구는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되었다. 덩링이 문단에 등단함과 동시에 그녀의 작품에 대한 평론이 시작되어 그녀의 창작 활동과 동반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추측해보면 덩링에 대한 연구는 이미 9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또한 문학사적 논술 외에도, 대량의 전기물과 전문 서적의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런 연구 성과의 총결은 자료 수집과 학술 논문 두 종류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자료 수집은 덩링 연구의 기초 작업에 속한다. 신시기⁵⁾가 되어 영향력 있는 자료가 수

집되었는데, 원량준(袁良駿)의 〈딩링 연구자료〉 6)와 손두완전(孫端珍), 왕중천(王中枕)의 〈딩링 국외에서의 연구〉 7) 등이다. 전자는 주로 20세기 30년대에 도달할 때까지 대륙과 홍콩, 대만등지에서 그녀를 연구한 논저와 논문을 수록하였다. 후자는 지난 세기 80년대 초 국외의 주요한 딩링 연구의 문장들을 수집하였다. 이 같은 자료 수집은 일종의 기초 작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딩링 연구의 대체적인 모습과 맥락을 그려 낼 수 있게 되었다.

딩링 연구에 대한 학술 논문집은 문화대혁명 이후 여러 각도에서 관심을 끌었다. 천룽이(陳榮毅)는 1981년에 발표한 〈딩링 연구의 두 가지 문제〉 8)에서 제의하기를 “딩링 연구는 당연히 문제를 일정한 역사 범위 안에 넣어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토대로 진실을 탐구해야 한다.” 9)라 하였다. 천후이편(陳惠芬)이 1985년 발표한 〈근대 딩링 연구 논평〉 10)에서는 문화대혁명 이후의 딩링 연구에 대하여 회고하였는데, 문혁 이래 딩링 작품의 재평가 및 창작 개성연구와 새로운 연구 방법의 운용상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또한 많은 연구자들은 경직된 비판 유형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새로운 연구 방법을 도입하였다.

임웨이민(林偉民)은 〈딩링 소설연구 60년의 경과〉에서 종적, 횡적으로 丁玲 연구사 60년의 역사를 개괄하였다. 그에 의하면 딩링 작품이 학술적 논쟁이 되는 원인은 “정치를 제외하면, 관건은 작품자체의 특수성과 형상성과 풍부성”이었다. 11) 저자는 최후에 제기하기를 “딩링은 위대한 작가로서의 충분한 조건을 구비했다. …… 그러나 그녀는 결국 세계 문단에 공헌할 만한 일류 작품이 없었으며, 그녀 자신도 세계 위대한 작가의 행렬에 진입하지 못하였다. 이는 모든 중국 신문학과 시대의 심각한 비극이었다.” 12)라고 하였다.

리우원차이(陸文采)의 〈문화대혁명 이후 딩링 연구의 회고와 전망〉에서는 문화대

5) 문화대혁명이 끝난 이후 시기

6) 袁良駿: 〈丁玲研究資料〉, 天津人民出版社, 1982年 3月版, 第131页

7) 〈国外丁玲研究概観〉, 中国文联出版社, 1984年 10月版

8) 陈荣毅: 〈关于丁玲研究的两个问题〉, 《天津师学报》 1981年第3期

9) “应该将问题放到一定的历史范围内进行实事求是地分析”

10) 陈惠芬: 〈近年丁玲 研究述评〉, 《文学评论》 1985년 제 6기

11) 林伟民: 〈丁玲小说研究60年述评〉, 《武陵学》刊 1991년 제 1기

12) “具备一个伟大作家的充分条件……但她最终并没有能够奉献给世界文坛堪称一流的作品, 而其本人也未能进入世界伟大作家的行列, 这是整个中国新文学和时代的深刻的悲剧”

혁명 이후의 덩링 연구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하면서, “역사와 현실의 교차점에서 덩링 창작의 독창적 예술성과 미학적 정서를 탐색하였다.”고 하였고, “덩링의 일생은 비극적인 면에서 보면 중국 지식인의 운명이었고, 그 중에서 인생의 참뜻을 깨달았다”라고 역설하였다.¹³⁾

이 외에도 위엔량준은 대만·홍콩에서 해외 덩링 연구자들을 순례하며 찾아 다녔다. 의식 형태와 민족 문화 심리의 차이를 통해서 해외 덩링 연구는 중국의 문학도들에게 더욱 계몽적 의미를 부여하여 연구하게 하였다. 해외에서의 연구는 중국에도 도움이 되었고,¹⁴⁾ 전체적인 덩링 연구 외에 덩링의 소설, 산문 및 대표적인 가작들도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연구 방법에 대하여 말하자면 덩링 연구는 중국 문학사 연구의 유형에 속하고, 연구자의 역사적 관점과 입장을 요구하며, 동시에 사회의 흐름과 시대적 분위기, 문단의 풍조 등도 일종의 문학사적 방향 모색이었다.

이 외에도 덩링 연구사는 실질적으로 덩링을 있는 그대로 어떤 편견을 갖지 않고 받아들이는 과정에 속했다. 이것은 곧 연구자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접수자와 작가를 고찰한다. 작품의 상호 관계 이외에도 한 명의 여류작가로서 덩링의 작품 속 여성의식은 이미 논자들에 의하여 공인되고 인정받는다.

덩링의 창작은 현·당대의 두 시기를 관철하며, 문학 발전의 하나의 유형으로 한 자리를 차지한다. 초기에 문단에서 이름을 날린 작품 《쏘피 여사의 일기》에서부터 국제적 명성을 얻은 《태양은 쌍간 강위를 비추다》까지, 개성해방에서 계급혁명까지 덩링의 창작 과정은 거의 중국 현·당대 문학발전의 축소판이다. 따라서 덩링의 작품은 문학과 정치, 폭로와 칭송, 창작 개성과 시대적 공명 등 많은 문학사상의 문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국 국내에서 덩링의 작품에 대한 논문은 아주 많은 편이다. 덩링에 대한 평가는 《쏘피 여사의 일기》가 발표 되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현재까지 발표된 논문의 숫자만도 37,727편으로 검색되며, 발표되는 지역도 중국 전역에 걸쳐 있어 논쟁이 많은 작가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덩링 연구는 모든 작품에 대하여 이루어졌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쏘피 여사의 일기》와 《태양은 쌍간 강을

13) 陆文采:〈新时期丁玲研究的回顾和展望〉,《文史哲》1995년 제 5기

14) 袁良骏:〈台港, 海外丁玲研究巡礼〉,《新文学史料》1991년 제 3기

비추다》에 집중되어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한국에서의 덩링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못하였다. 1991년 박준식의 석사 논문 〈덩링의 《莎菲女士의日記》研究〉-주인공 쏘피의 인물특성을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는데 1920년대 중국 문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주로 ‘쏘피’ 인물의 특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2000년 이후 비로소 소논문들이 발표되기 시작한다. 한국 내 논문의 주제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항전과 항전 시기 피해자들의 모습을 그린 점에 대하여 논하는 것이다. 2015년 봉인영의 〈환영과의 전쟁〉과 2017년 봉인영의 〈덩링의 위안부 서사 타자화 된 감정과 여성 임파워먼트〉, 2017년 이선이의 〈중일 전쟁 시기 덩링의 일본군 성폭력 재현과 1956년 전범재판 피해자 증언의 의미〉, 2015년 강에스터의 〈항전기 덩링 소설의 낭만주의적 특성〉에서는 공통적으로 덩링의 관심사였던 위안부 문제를 다루며, 덩링이 정치적 영향권 안에서 작가생활을 한 이유를 잘 표명하고 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를 다룬 소설 《내가 안개마을에 있을 때》가 주로 분석 대상이 되고 있다.

두 번째의 주제는 여성문제와 전통사회에서 변화 되어가는 중국의 현실을 다룬다. 2013년 이국봉의 〈상해시기 덩링의 문학 창작 활동과 근대의 경계〉에서는 덩링이 제시한 문제의식과 변화되어 가는 중국의 의식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16년 이선이의 〈덩링, 중국 여성주의의 여정〉과 2011년 려옥용의 〈성별 연구에 대한 연구 - 덩링 작품 속에서 본 여성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사이의 갈등과 융합〉, 2013년 조영경의 〈덩링, 아모고낭(阿毛姑娘)의 성장 소설적 읽기〉 등을 들 수 있다.

세 번째 관점은 성(性)에 대한 관점이다. 대표적인 논문으로 2002년 김경남의 〈덩링의 사랑과 문학〉에서는 사랑과 여성의 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2007년 이보경의 〈문학치료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은 성과 치유가능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2010년 김은희의 〈덩링의 《쏘피 여사의 일기》 다시 읽기〉에서는 인간의 내면심리와 쏘피의 내면심리 ‘욕망과 억압’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2012년 민혜정의 〈덩링의 《쏘피 여사의 일기》에 나타난 창작특색〉에서도 덩링이 이 소설을 써야 했던 구체적인 이유와 여류작가의 특징으로 심리묘사를 꼽으며, 쏘피와 링지스의 애정의 흐름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이외에도 2016년 이선이의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변형〉에서는 중국의 역사와 덩

링의 역사 이해에 대하여, 2013년 조성한의 <지식인 문혁의 의미>에서는 덩링의 작품과 문혁의 영향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이상 살펴 본 것처럼 한국에서 발표된 덩링의 논문은 현재까지 28편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쓰피 여사의 일기》를 집중적으로 다룬 논문은 많지 않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덩링의 작품과 작품이 나오게 된 과정, 배경, 그리고 덩링의 심리 상태 등을 종합하여 《쓰피 여사의 일기》를 연구하였다.

제 2 장 작가와 작품소개

1) 작가 덩링의 일생

덩링은 1904년 10월 12일 후난성(湖南省) 창더(常德)의 외가에서 태어났다. 청나라 말의 수재로 일본 유학을 한 부친 장바오첸(蔣保黔)과 학식 있는 집안 출신인 위만진(余蔓貞) 사이에서 태어나 부친의 고향인 린리현에서 자랐으며, 본명은 장웨이(蔣偉), 자는 빙즈(冰之)이다. 후난 성의 소도시에서 성장한 그녀는 어머니의 친구인 상징위(向警豫)를 통하여 신사상을 접하였다. 덩링이 네 살 때 부친이 요절하고 양쪽 집안에서 경제적 지원이 끊기자 덩링의 모친은 삼십 세의 나이에 전족을 풀고 사범학교에 입학, 소학교 교사가 되어 덩링 남매를 길렀는데 그때 막역한 벗이 되어 주었던 이가 상징위였다. 프랑스 유학 1세대였던 상징위의 영향으로 덩링은 프랑스로 상징되는 서구 문화에 대한 동경을 품었으며 일곱 살부터 열네 살 까지 어머니 곁에서 번역소설과 문학잡지를 보며 자랐다. 집안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부계 종법제의 잔혹함을 경험하고 5·4 신문화 사조를 접한 뒤 이름을 ‘덩링’으로 바꾸고 머리를 단발로 자른다. 덩링이 어렸을 때 외조모가 사촌 오빠와 약혼을 정해 놓았는데, 덩링이 상하이로 공부하러 간다고 하자 외숙부는 이에 반대하여 사촌 오빠와의 결혼을 강요하였다. 덩링은 외숙부에게 가서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혼약은 무효라며 약혼을 파기하고 열여덟 살 되던 1922년 상

하이로 배움을 찾아 떠난다. 상하이에서 그녀는 지적 자극을 준 중요한 인물인 취추바이(瞿秋白)¹⁵⁾와 사제 사이로 만나게 된다. 문학적 감성이 풍부하고 훗날 중국공산당 서기를 역임하기도 했던 취추바이는 그녀의 반골 기질을 간파하고 “마음껏 날아 보시오. 당신은 높이 날아야 할 한 마리 새요”¹⁶⁾라며 타고난 문학적 재능을 일깨워 주었다.

1924년 상하이로 떠나 베이징으로 상경한 덩링은 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하려다 낙방을 맞았으나 그곳에서 사랑과 명성 두 가지를 모두 얻게 된다. 무명 시인인 후예핀(胡也頻)¹⁷⁾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1927년에는 《쏘피 여사의 일기》를 써서 1928년 발표하였다. 1927년은 국민당과 공산당이 전국통일을 위하여 맺었던 제1차 국공합작이 결렬된 해로, 그 결과 반혁명파가 득세하여 지식인들이 베이징을 빠져 나가고 상하이에서는 덩링의 지인들이 국민당에게 목숨을 잃는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암울한 분위기에서 《쏘피 여사의 일기》가 쓰여졌다.

1930년대 중국 사회는 국내적으로는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대결이 격화되고 국외적으로는 일본의 침략으로 중일전쟁이 전면화 된 상황이었다. 이 시기 덩링의 글쓰기는 점차 고통 받는 농민과 하층민으로 제재가 확장되고 기법도 심리묘사 보다는 사실주의적인 경향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에는 덩링의 인식과 더불어 개인사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1931년, 남편 후예핀이 ‘좌련오열사’¹⁸⁾의 한명으로 국민당에 체포되어 처형당함에 따라 그녀는 스물일곱의 나이에 생후 삼개월 된 아들을 홀로 길러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아기를 후난 성의 어머니에게 맡기고 상하이로 돌아온 덩링은 좌익작가연맹의 기관지인 베이더우(北斗)의 편집장을 맡고 이듬해 공산당에 입당하였으며, 1933년 국민당의 연금지에서 공산당의 도움을 받아 탈출에 성공한다. 그녀는 공산당의 근거지를 찾아온 첫 번째 유명인사로서 재중 미국 언론인 애그니스 스메들리(Agnes Smedley)¹⁹⁾와 마오쩌둥(毛澤東)과 저우언라이(周恩來)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

15) 瞿秋白(1899-1935) 중국의 문학가이면서 정치가. 1922년 중국공산당에 입당하여 1927년까지 중국공산당 총서기로 취임하였다. 장쑤성 출신. 독학으로 러시아어 프랑스어 영어를 익히고, 러시아의 유명작가 무명작가의 작품을 많이 번역하였다. 덩링과는 난징에서 알게 되어 취추바이의 권유로 상하이 대학에 입학, 교수와 제자지간으로 지내면서 덩링의 생활과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후일 1980년 덩링이 <내가 알던 취추바이 동지; 추억과 수상>을 쓴다.

16) “尽可能地飞行，你是应该飞的一只鸟” 이국봉 <상해 시기 덩링의 문학창작 활동과 근대의 경계> 해양도시문화교섭학8, 90쪽

17) 胡也頻(1903-1931) 福建출신, 1924년 덩링을 만나 사랑에 빠져 덩링이 후난성으로 잠시 돌아갔을 때, 만난지 일주일도 안 된 덩링을 쫓아가서 같이 베이징에 돌아온 후 같이 살기 시작, 1928년 결혼한 처음 남편이다.

18) ‘좌련 오열사 사건’을 말하는데 1931년 1월 국민당이 ‘좌련’소속 작가 다섯명을 체포하여 재판없이 비밀리에 처형한 사건이다. 후예핀 외에 러우스(柔石), 인후(殷夫), 펑경(冯铿), 리웨이썬(李仿森)등이다.

았다. 이 시기에 덩링은 〈3·8절 유감〉, 《내가 안개 마을에 있을 때》와 《병원에서》 등 비교적 자유로운 글쓰기를 이어간다.

1942년 중국공산당은 <옌안문예좌담에서의 강화(在延安文藝座談會上的講話)>²⁰⁾를 통해 자유주의적 작가들을 비판하였다. 덩링의 작품들에 대해서도 ‘간부와 대중²¹⁾ 사이에 금이 가게 한다’고 비판하였으며, 이십년간 변방으로 보내져 농촌 생활을 하게 한다. 그 후의 덩링 작품에는 지식인 특유의 비판적 문제 제기 보다는 사회의 밝은 면을 부각시키는 긍정적인 글쓰기가 두드러지게 된다. 장기간의 농촌체험은 《태양은 쌍간강위를 비추다(太陽照在桑乾河上)》의 토대가 되었으며, 1952년 ‘사회주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스탈린문학상 이등상을 수상하였다. 이 작품은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중국혁명의 과정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덩링을 국제적인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해 주었다.

1955년 활발히 활동하던 덩링은 갑자기 적지 않은 타격을 입는다. 공산당은 1956년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조기에 달성되었다고 발표하면서, 부르주아와 노동자, 농민, 지식인의 연합정부인 ‘신민주주의 혁명의 단계’를 폐지하였다. 이 때 마오쩌둥은 ‘사회주의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급진 좌경 노선을 추진한다. 문예계에서는 이러한 좌경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소위 ‘우파 지식인’을 비판하는 ‘반우파 투쟁’이 전개된다. 이때 덩링은 스탈린 문학상을 받아 국제적 명성을 누리고 있었는데 ‘걸작 한편만 쓰면 된다’는 생각을 지닌 것으로 오인 받고, ‘책 한권주의’라는 죄목으로 숙청당하게 된다. 마오쩌둥이 1950년대 초 지식인들의 비판적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자본주의 요소가 부활’ 한다며 당시 국내외적 정치 상황에 대해 제동을 걸고자 단행하였던 조치였다.

비판을 받은 덩링은 1958년부터 거의 20년간을 창작 권리를 박탈당한 채 동북부 개간지인 베이다황(北大荒)에서 월급을 받으며 노동자로 살았다. 이십년 동안 그녀의 생사는 알 수 없었으며 작품도 판금되었다.

1976년 6월 대중들 앞에 나타난 덩링은 노동개조와 오랜 수감 생활로 인해 주름이

19) Agnes Smedley (1892-1950) 《중국의 붉은 별》 《위대한 길》 《대지의 딸》의 저자

20) 1942년 마오쩌둥이 문예좌담에서 행한 연설로, 이후 중국공산당의 문예정책의 골자를 담고 있으며 덩링에 대한 비판이 포함되어 있다.

21) 간부는 옌안의 공산당 지도부를 일컬음이고, 대중은 전국에 흩어진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깊게 폐인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며, 그동안 그녀가 무엇을 하며 어떤 생활을 하였는지는 알려진 바가 극히 적다. 다만 1965년에 쓰기 시작하여 1979년에 출간한 《두완향(杜晚香)》과 수감 생활을 수필 형식으로 묶은 《외양간 소품(牛棚小品)》 등을 통해서 추정해 보는 정도다.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중국이 서방세계에 조금씩 개방하기 시작한 1981년 덩링은 미국을 방문하였다. 일흔일곱의 노인이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형형한 눈빛을 지닌 그녀에게 서방 기자들이 “문화대혁명의 대표적인 피해자로서 중국에 창작의 자유가 있다고 보는가?”, “근 이십년간 겪은 고통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는 식의 질문을 쏟아 붓자 이렇게 답하였다. “제가 나라 안에 있을 때도 한마디 원망을 안했는데 하물며 나라 밖에 나와서 원망 하겠습니까”²²⁾라고 대답하여 순간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비판적 발언을 기대했던 서양 기자들은 몹시 당혹스러워 했다고 한다.

사회주의 중국 건국 후에 덩링은 지식인으로서 균형 감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현실에 밀착하여 인민들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신세대의 생기발랄한 개척정신을 고무하는 한편, 고루한 관료주의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의 종결과 함께 사인방이 실각하고 난 뒤인 1979년 10월 8일자 일기에는 미국에서 인터뷰하던 당시와 달리, 그녀의 솔직한 심경이 드러나 있다.

“글을 쓰려면 더욱 깊이, 더욱 생활화해서 써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일군의 사람들에게 밋보이겠지. 중국에는 아직 이런 자유가 없다.²³⁾ 〈3·8절 유감〉은 나에게 수십 년의 고통을 주었다. 옛 상처가 여전한데 어찌 또 스스로 화를 자초하여 자손들에게 재앙을 남기겠는가?”

불행하게도 자기검열이라는 문제가 그녀의 내면 깊숙이 극복하기 힘든 질곡으로 자리 잡았음이 느껴지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의 인터뷰에서 그녀의 대답은 사실은 자기검열보다 더 깊숙이 자리 잡은, 자유롭고자 했던 덩링이 생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중국, 중국인의 자존심, 개인 작가로서의 기준과 신념을 고민하였던 일면을 볼 수 있다.

22) 《덩링》 쑹칭 지음 김미란 옮김 1998년 다섯수레 316-317쪽

23) 김미란 역 《내가 안개 마을에 있을 때》 2012년 작품해설 156쪽

2) 《쏘피 여사의 일기》의 즐거리

《쏘피 여사의 일기》는 1927년에 창작하여 이듬해 1928년 2월 10일 <소설월보> 19권 제2호에 발표한 것으로, 덩링이 23세 때 《멍커(夢珂)》에 이어서 두 번째 발표한 작품이다.

작중 일기는 12월 24일부터 이듬해 3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일기이다. 폐병이라는 지병을 앓고 있는 주인공 ‘쏘피’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20대의 예쁜 처녀이다. 동생빨 오빠빨 되는 남자들이 수시로 쏘피의 집을 드나들고 지나다니면서 환자인 줄 알면서도 남녀 사이로 발전시켜 보고자 부단히 애쓴다. 그 남자와의 감정적인 발전과정, 단둘이 방안에 있으면서 느끼는 흥분되기도 싸늘해지기도 하는 장면을 일기 형식으로 아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

쏘피는 12월 24일 일기를 시작하는 날, 마냥 누워 있어야 하는 환자의 고독감과 신문의 모든 내용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설명한다. 웨이디 동생이라고 칭하는 남자가 쏘피를 보살피러 온다. 쏘피는 사소한 생활에 관하여 또 친한 친구들을 등장시키며 감정의 동요 없이 지내다가 1월 1일 일기에 처음으로 링지스(凌吉士)를 등장시킨다. 키가 크고 잘 생긴 남자의 등장으로 지금까지 보아 왔던 다른 모든 친구에 대한 관심에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다. 밤마다 기침과 고독과 싸우는 쏘피는 첫인상에 반한 남성에게로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간다. 할 일 없는 환자의 마음속으로 싹트는 감정의 흐름을 솔직하게 거리낌 없이 한 줄 두 줄 써내려 간다. 지금 사는 방의 환경은 그런대로 좋은데 링지스와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더 좋지 않은 방으로 이사를 가고, 매일 만나면서 사랑하는 기쁨이 고조 되어가는 과정을 조금씩 격한 표현으로 바꿔 나간다. 더 자주 만나기 위하여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는 링지스의 제안을 기쁘게 애교스럽게 받아들이고, 다른 커플들의 예를 들면서 남녀가 아기를 갖지 않기 위해 같이 잠을 못자는 것을 한탄하고, 친했던 원 언니가 사랑 때문에 죽어가는 것에 충격을 받는다.

링지스와의 이야기는 1월 17일부터 주체할 수 없는 정도로 심해진다. 끊었던 술을 마시고 본인 스스로 ‘미쳤다’는 것을 인정한다. 링지스와 자주 만나고 산책을 하고 사랑을 키우는 사이 웨이디 동생은 질투를 한다. 웨이디는 남자이면서 울음으로 짝사랑

하는 본인의 서러움을 드러내고 나중에는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누나를 인정하기로 한다. 쏘피는 폐병 환자로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본인의 처지에서 오는 갈등에 긴 밤 잠 들지 못하고 괴로워한다. 링지스가 오지 않으면 서운하고, 오면 좋긴 하지만 불안해져서 화를 낸다. 사랑하는 마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은 깊어지고, 쏘피는 견잡을 수 없는 욕망과 남자의 집요한 요구, 또 거기에 부정해야 하는 현실 사이에서 고민한다. 결국 쏘피는 모든 걸 정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씨산(西山)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한다. 링지스와 마지막 인사를 하고 홀로 죽음을 기다린다면 소설은 끝난다.

제 3 장 《쏘피 여사의 일기》 인물 분석

1) 쏘피

一. 쏘피 소개

‘쏘피’는 쏘피아 페로브스카야 (Sofya Perovskaya)라는 신해혁명 이전 세대에 잘 알려진 러시아 여성 혁명가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그 이름이 풍기는 신비함과 애매 모호함 또한 시대 정서를 간취하는 덩링의 기발한 감각을 잘 보여준다.²⁴⁾

20세기에 덩링이 소설을 쓰기 시작하여, 바로 중국 신문학 발전의 과정에서 제1기 10년의 종결 시까지, 좌익 문학의 싹이 트기 시작하면서 쏘피의 출현으로 5·4운동 시기 이후가 풍부해졌다. 그로 인해 덩링도 중국 문단의 유명 작가 행렬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런 후 ‘쏘피’라는 명성 높은 소설 속 인물은 50년대 비판의 과정 중에 작가 덩링을 범죄자로 만들었다. 작품 발표 당시 ‘쏘피’라는 여성의 고민은 덩링 작가의 품행으로 오인되어 강압적으로 20년 넘는 긴 시간동안 종적을 감추게 만들었다.

‘쏘피’형 여성은 이미 문학사상의 전형으로, 그 당시 시대여성의 대명사가 되었다.

24) 宗誠 著 김미란 역 《丁玲》 다섯수레 1998년 51쪽

마오둔(茅盾)은 “쑤피 여사는 심리상 시대의 고민으로 상처받은 젊은 여성의 반역과 절규하는 여자로, 5·4운동 이후 해방된 젊은 여자가 성애에서 느끼는 모순된 심리의 대표자”²⁵⁾라 하였다. 펑수에펑(馮雪峰)은 쑤피 형상의 계급성에 착안하였고, 장용취엔(張永泉)은 “쑤피는 암흑 속에서 광명을 찾는 소자산계급의 반역적 여성이며, 이것이 쑤피의 성격의 핵심”이라 하였다²⁶⁾.

80년대 이후 현대적 입장의 연구자들이 주장한 쑤피 형상은 반봉건적, 모순적, 반역적 여성의 기초위에 다시 새로운 의미가 더해졌다. 연구자들은 쑤피의 이미지가 곧 봉건사회에 대항하는 신랄한 비판이라 하였다. 그들은 주로 현대적인 성격에서 출발하여 덩링의 작품과 문학의 현대성 추구하고 연결해서 쑤피 성격의 현대적 의의를 부여한다.

덩링은 그 시대적 배경을 통해 여성의 자아의식과 각성을 끌어내려는 하나의 항쟁이며, 당시의 남성사회에 대한 전통여성의 존재적 가치관을 타파하고 도전을 완성하였다. 쑤피의 형상은 시대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가 포함되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매번 새로운 비평이 쓰여 지면서 쑤피의 이미지를 새로 발견하기도 했다.

‘쑤피’의 이야기 전개는 주의를 기울어진 환경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번민은 그녀의 철학과 세속 사회의 허위성을, 모욕적 경멸과 부정적으로는 묘사하지 않았다. 봉건주의에 반대하는 현대적 의의가 있고, 거기에 문학 발전의 의미도 구비하고 있었다. 또 문학의 틀 위에서, 덩링의 작품 속에는 현대성 추구라는 결과가 있고, 신문학에 현대성 추구를 더한 결과가 되었다. 연구자들은 종종 현대 문학 창작 과정을 종합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쑤피’의 반봉건, 반 모리배를 연구자들의 어려운 난제 중 하나로 꼽았다.

여성주의 비평은 여류작가의 여성의를 아주 중시하게 평가하였다. 연구자들은 덩링의 작품 속에 강하게 침투하여, 여성과 인격독립, 자아실현을 동경하고, ‘쑤피’의 고민, 고독, 환멸 등 이러한 괴팍한 정서, 사실상 여성의 이런 독립의식의 굴곡, 심각한 반영 등을 이 작품의 특색으로 꼽았다. 그 외에도 여성주의 비평은 여성 문학전통을 찾고 건립하기 위하여, 아득한 역사의 오점들 중에 여류작가들에게 상응하는 역사적 위치를 제공했다.

덩링은 《쑤피 여사의 일기》를 발표하면서, 5·4운동 시기 빙신 등 여류작가들이 개

25) 茅盾: 〈女作家丁玲〉, 《丁玲研究资料》第253页

26) 馮雪峰: 〈从‘梦珂’到‘夜’〉《丁玲研究资料》第293页

척한 현대여성 문학의 전통을 끊이지 않고 실마리를 찾아서 당시의 소설 풍격 외에 또 다른 풍격을 세웠다.

딩링은 여성 문학역사의 중요한 전환을 보여준다. 이것은 여성 문학의 중요한 시작으로, 다시 새로운 각도에서 딩링의 창작과정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딩링의 두드러진 심리 묘사는 여류작가 특유의 심리적 표현으로, 특히 여성의 성욕에 대한 내재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 여성주의 비평의 연구는 ‘쏘피’의 고민이 소자산 계급의 고민이며, 곧 여성의 삶의 고민이고, 심리적 고민이라고 밝혔다.

二. 쏘피의 성격

쏘피를 혹자는 ‘연애지상주의’²⁷⁾라고 했고, 혹자는 ‘현대 소설의 지식여성 계열 중 한 시대를 대표 한다’²⁸⁾라고 하였다.

사실 5·4 신문화운동 이후, 딩링이 창작한 여성형상 가운데 쏘피 만큼 생동적이고 진실한 형상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평도 있다.²⁹⁾ 그녀는 미묘하고 모순된 연애심리 속에서 고뇌하는 인물이다. 지나칠 정도로 감성적인가 하면 어느 순간 냉철하고 이지적인 지식인의 형상으로 돌아와 있고, 주변의 소음이 시끄러워도 불만이고 또 반대로 너무 조용해도 불만인 까다로운 성격의 주인공이다. 그녀는 자유분방한 개성과 연애지상주의를 표방하는 새로운 유형의 지식인으로서 애정에 대한 남다른 갈망과 추구가 두드러진다. 한마디로 그녀는 복잡하고 풍부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즉 내심의 감정이 이성적 판단과 줄곧 대치하는 모순 갈등을 통해 쏘피만의 은밀한 의식관념의 세계를 잘 드러낸다.

쏘피에게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살아 숨 쉬는 여성의 욕망과 자아의 감정이다. 쏘피는 거침없이 말했다. “나는 내 자신을 즐겁게 할 것이다. 낮이건 밤이건 나는 내가 죽을 때 아무런 아쉬움이 없도록”³⁰⁾. 폐병에 걸린 그녀이지만 살아 있는 동안이라도 인생의 모든 쾌락을 다 누리겠다는 의지와 욕망의 표현이다. 또 바로 그렇기 때문이었

27) 冯雪峰的评价, 张天翼, 《关于莎菲女士》 第404页

28) 殷国明, 张芝红著, 〈对女性人格美的呼唤〉, 《中国现当代小说中的知识女性》, 广东高等教育出版社, 1990年, 129页

29) 김경남 〈딩링의 사랑과 문학〉 35쪽 덕성여자대학교 2002년 11월

30) 我要使我快乐, 无论在白天, 在夜晚, 我都在梦想可以使我没有什么遗憾在我死的时候的一些实情”《莎菲女士的日记》中

는지 그녀는 쉽게 상심하고 화를 내고 후회하기를 수시로 한다. 또 바로 그런 그녀에게 오만하고 애정추구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담대한 면모를 보인다.

그녀는 처음 만난 준수한 외모의 링지스(陵吉士)에게 반한 후, 그에 대해 기우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다.

“나는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넌 그 기다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니? 그래, 요 며칠 밤낮으로 시도 때도 없이 나를 유혹하고 있어. 왜 그는 요 며칠 사이에 혼자 나를 보러 오지 않는 걸까?”

이는 다만 그녀의 머리에서만 맴도는 상념에 불과했다. 이런 생각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너무도 확실하고 강한 여성의 잠재적 욕망의 표출이다.

“그의 신체의 미세한 구석구석을 탐색해 볼수록 더욱 강하게 내 입술을 그 입술에 포개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당시의 쏘피 여사의 일기가 환영을 받았던 이유도 이처럼 담대하고 직설적인 자기 욕망을 가감 없이 드러낸 데 있다.

① 강한 자존심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사회 속의 피동적인 여성 관념의 속박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설마 내가 그를 찾아가야 한다는 말인가? 여자가 이렇게 분방하면 좋은 결과가 없을 거야.” 이를 봉건적 관념의 제약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녀 특유의 강한 자존심 때문이라 해야 옳은 듯하다. 제멋대로인 자신의 성격을 자존심 하나로 버티가는 쏘피는 자신을 죽어라고 따라다니는 남학생 웨이디(葦弟)를 그야말로 농락하는데, 자신의 자존심을 굽혀가면서까지 링지스와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았다. 자존심을 살리려는 그녀의 노력이 진지하게 계속 이어진다.

这几天我都见着凌吉士。我没有一次邀请他来我那儿，虽然他问了几次搬家如何，我都装出不懂的样儿笑一下便算回答。我把所有的心计都放在这上面，好像同什么东西搏斗一样。我要那样东西，我还不愿去取得，我务必想方设法让他自己送来。是的，我了解我自

己, 不过是一个女性十足的女人, 女人只把心思防到她要征服的男人们身上。我要占有他, 我要他无条件的献上他的心, 跪着求我赐给他的吻呢。我简直癫了, 反反复复的只想着我所要施行的手段的步骤, 我简直癫了!³¹⁾

요 며칠 나는 매일 링지스와 만나고 있다. 나는 한 번도 그에게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지는 않았다. 비록 몇 차례 그가 이사는 잘 했느냐고 묻기는 했지만 나는 모르는 척 웃어넘김으로서 대답을 대신하곤 했다. 나는 마치 어떤 것과 싸우는 것처럼 모든 심신을 여기에 두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 가지 않고, 온갖 방법을 생각해내어 그가 스스로 가져오도록 만들 것이다. 그렇다. 나는 내 자신을 잘 안다. 나는 아주 여성스러운 여자일 뿐이다. 여자는 자신의 마음을 그녀가 정복하고자 하는 남자에게만 쏟는다. 나는 그를 점유할 것이다. 나는 그가 무조건적으로 그의 마음을 바치고, 무릎을 꿇어 내게 키스를 하게해달라고 빌게 할 것이다. 나는 정말 미쳤다. 내가 실행하려는 수단의 절차만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있다. 나는 정말 미쳤다.

그러나 쏘피는 개성적이고 독특하지만 속된 여성은 아니었다. 그녀의 날카롭고 냉정한 이지는 링지스의 본질을 충분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当我明白了那使我爱慕的一个高贵的美形里, 是安置着如此一个卑劣灵魂, 并且无缘无故还接受过他的许多亲密。这秘密, 还值不了他从妓院中挥霍里蹭剩余下的一半想起那落在我发际的吻来, 真使我悔恨到想哭了! 我岂不是把献给他任他来玩弄来比拟到卖笑的姐妹中去!³²⁾

“나는 내가 사모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이처럼 비열한 영혼이 들어차 있음을 알아 차렸다. 그것은 무척대고 그의 많은 친절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그 친밀함은 그가 기방에서 뿌리고 남은 반의 가치도 없다. 내 머리카락 사이에 쏟아진 입맞춤이 생각나자 정말이지 후회스러운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이걸 나를 그가 마음대로 웃음을 파는 여자들처럼 생각토록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통찰에 힘입어 냉정을 되찾기는 했지만 마음속의 기다림과 방황은 쉽게 끝이 나지 않았다. 아침이 될지 저녁이 넘어서일지 아니면 저녁이면 행여나 오겠지 하는 기

31) 丁玲;《丁玲全集》第3卷, 河北人民出版社, 2001년, 51页

32) 丁玲;《丁玲全集》第3卷, 河北人民出版社, 2001년, 58页

대감은 쉽사리 접지 못했다. 하지만 수많은 모순된 심리를 겪으면서 그녀는 점차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무엇이든, 무엇을 바라는 지에 대한 물음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내기에 이른다.

为了自己的热闹，为了得一群浅薄的眼光赞颂，我也不该拿不起笔或枪来。真的便把自己陷到比死还难忍的苦境里，单单为了那男人的柔发，红唇.....³³⁾

“스스로에게 떠들썩함을 마련하고 사람들의 천박한 안목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붓과 총을 들지는 않을 것이다. 정말 나를 죽음보다도 더 건디기 어려운 역경 속에 빠지게 한 것이 고작 그 남자의 부드러운 머리카락과 붉은 입술 때문이었다니.....”

마침내 그녀는 링지스가 자신의 허영과 육체적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한 존재임을 깨닫고는 결심을 한다. “나는 내 자신이 육체적 유혹에 의해 타락하는 걸 구원하기 위해서”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 이후로도 따르는 빈민과 갈등이 적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링지스와는 다른 차원의 이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에게는 가정도, 금전도, 사회적 지위도 이상이 될 수 없었다. 그 이상은 막연하지만 링지스의 속된 인생 목표와는 분명히 차원을 달리 하는 것이다. 그 이상은 자신의 목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그녀의 최종 목표이자 그녀가 추구하는 것으로, 쏘피의 가치, 매력적으로 작품이 흘러가는, 누구나 추구하는 인생의 나름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묘사된다. “쏘피는 타락한 심연 속에서 일종의 독립된 매력을 찾아 해매고 있었다. 쏘피는 정말로 자기 부정과 긍정의 종합체”³⁴⁾였던 것이다.

그런데 여성이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각성하는 순간, 남성들에 의해 연술된 ‘사랑’에 관한 담론은 의심스러운 것으로 다가온다. 일기에는 웨이디와 링지스라는 두 명의 남성이 등장한다. 이 둘은 각각 “선과 미의 자태로 쏘피와 독자 앞에 나타난다.”³⁵⁾ 웨이디는 여성을 보호하고 존중할 줄 아는 ‘첸틀맨’이고, 링지스는 자본주의적 삶에 보다 밀착된 ‘모던 보이’를 표상하는 인물이다.

我常常想，假使有那么一日，我和他的嘴唇合拢来，密密的，那我的身体就从这心的狂笑

33) 丁玲; 《丁玲全集》第3卷, 河北人民出版社, 2001年, 58页

34) 殷国明, 陈志红著 《对女性人格美的呼唤》 第129页

35) 张红静, 〈论‘莎菲女士的日记’的文体特徵〉, 《语文学刊》, 2010年,第5期, 26页

中瓦解去，也愿意。其实，单单能获得骑士般的那人儿的温柔的一抚魔，随便他的手尖触到我身上的任何部分，因此就牺牲一切，我也肯³⁶⁾

어느 날 나와 그의 입술이 맞물린다면, 질게, 그렇다면 나의 육체가 마음에서 나오는 미치광이 웃음소리로부터 무너져 버린다 해도, 그래도 원한다. 사실 그저 중세시대 기사와도 같은 그 사람의 부드러운 애무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의 손끝이 내 몸의 어느 곳이라도 멋대로 닿는다 해도, 이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한다 해도 나는 기꺼이 응할 것이다.

남성의 아름다운 육체를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겠다고 한다는 점에서 쏘피는 ‘극단적 유희적 경향을 지닌 현대 지식여성’³⁷⁾이다. 그녀는 성애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링지스의 많은 경박한 말조차 유순하게 받아들이고, 그를 신나게 만드는 비열한 향락과 암시하는 여자로서 지켜야 하는 본분을 인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때마다 최종적으로 자신을 링지스의 요구에 맞추기보다는 자신을 온전히 그대로 지키는 것을 선택한다. 따라서 링지스에게 ‘이상한 여자’로 보여진다.

② 과감한 본능 추구

이러한 쏘피의 이야기는 미화되고 있는 근대의 산물인 ‘연애’를 여성의 입장에서 성찰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연애를 내면화한 여성의 갈등 속에서 벌어지는 싸움이다. 사람을 미혹하는 감정의 유혹 속에 감추어진 것은 여성이 진정으로 찾고 있는 ‘애정’이 아니라 어드벤처를 쥐고 있는 남성들의 유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미혹되어 결혼을 선택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었다. 또한 《쏘피 여사의 일기》는 ‘성애’를 여성의 언어로 이야기하려는 시도이며, 근대와 함께 등장한 ‘연애’에서 ‘대환상’이 지니고 있는 함정에 대한 고변이기도 하다.

《쏘피 여사의 일기》에서 주인공은 상당한 지식인 여성이다. 그리고 사적 영역 속에서 여성의 지위가 단지 ‘성적 대상’으로서의 역할에 지나지 않는 것을 깨닫고 그 역할을 거부한 여성의 이야기이다. 또 ‘사적 영역’에서의 역할을 거부한 여성이 ‘공적 영역’³⁸⁾에서 살아가기 위해 놓인 길도 ‘공적 영역’에서의 ‘성’ 상품³⁹⁾이 되는 것을 의미한

36) 丁玲; 《丁玲全集》第3卷, 河北人民出版社, 2001年, 57页

37) 王玉宝, 《论莎菲女士的日记的唯美--颓废倾向》第1页

38) ‘사적 영역’은 가정 내 영역을 의미하고, ‘공적영역’은 국가와 시장을 의미한다.

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는 자본주의 근대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쏘피 여사의 일기》는 ‘성애’를 여성의 언어로 풀어내려는 시도이며, 그 ‘성애’ 속에 감추어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차별과 남성의 ‘음모-속셈’을 폭로하고자 한 이야기이다.

我应该怎样解释呢? 一个完全癫狂于男人仪表上的女人的心理! 自然我不会爱他, 还不会爱, 很容易说明, 就是在他丰仪的里面是躲着一个何等卑丑的灵魂! 可是我又倾慕他, 思念他, 甚至于没有他, 我就失掉一切生活意义了; 并且我常常想, 假使有那么一日, 我和他的嘴唇合拢来, 密密的, 那我的身体就从这心的狂笑中瓦解去, 也愿意。其实, 单单能获得骑士般的那人儿的温柔的一抚摩, 随便他的手尖触到我身上的任何部分, 因此就牺牲一切, 我也肯。⁴⁰⁾

나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남자의 용모에 완전히 광적으로 미쳐버린 여인의 심리! 당연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의 품격 있는 자태 안에 어찌면 그토록 추한 영혼이 숨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또 그를 흠모하며, 그를 그리워한다. 심지어 그가 없다면, 나는 곧 삶의 모든 의의를 잃어버릴 것이다. 또한 나는 항상 생각한다. 어느 날 나와 그의 입술이 맞물린다면, 짙게, 그렇다면 나의 육체가 마음에서 나오는 미치광이 웃음소리로부터 무너져 버린다고 해도, 그래도 원한다. 사실 그저 중세시대 기사와도 같은 그 사람의 부드러운 애무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의 손끝이 내 몸의 어느 곳이라도 멋대로 닿는다 해도, 이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한다 해도 나는 기꺼이 응할 것이다.

이 문장에 대해 여러 평가가 나오는데 “이런 솔직한 여성의 심리에 관한 묘사는 진정 중국의 문단에서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근대의 신여성에 대하여 이미 대부분은 이해하고 들어가기 때문이다.”⁴¹⁾ 주인공 ‘쏘피’는 폐병을 앓고 있는 여자이며, 그녀의 연애이야기는 결코 평범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 또한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기가 아니다. 혹은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아니다. 간단한 몇 개의 관계가 얽혀 있는 이야기는 더욱 아니다. 덩링의 ‘사랑’에 대한 견해는

39) 현재 페미니즘에서는 ‘성의 상품화’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성의 상품화’에서 남녀 간의 절대적 비대칭성 구조, 즉 남성이 지닌 어드밴티지(advantage)를 문제 삼고 있다. 당시 덩링은 ‘성의 상품화’로 인해 자기 자신의 여성성이 모욕당한다고 느끼며, 그 점을 문제시 한다고 볼 수 있다.

40) 丁玲; 《丁玲全集》第3卷, 河北人民出版社, 2001年, 76页

41) 杨桂欣; 《观察丁玲, 丁玲女士》, 大众文艺出版社, 2001年, 第197页

평범하지 않으며, 이전의 어떤 여류작가도 체득하지 못한 아주 깊은 것이다.⁴²⁾

今夜我简直狂了。语言，文字是怎样在这时显得无用！我心像被许多小老鼠啃着一样，又像一盆火在心里燃烧。我想把什么东西都摔破，又想冒着夜气在外面乱跑，我无法制止我狂热的感情的激荡，我躺在这热情的针毡上，反过去也刺着，翻过来也刺着，似乎我又是在油锅里听到那油沸的响声，感到全身的灼热……为什么我不跑出去呢？⁴³⁾

오늘 밤 나는 정말로 미쳤다. 언어, 문자라는 것은 이 순간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가? 나의 마음은 수많은 쥐들에게 갇아 먹히고 있는 것 같고, 또 화롯불이 마음속에서 타고 있는 것 같다. 나는 무엇이든지 전부 던져 부수고 싶고, 또 밤공기를 무릅쓰고 밖에서 무작정 달리고 싶다. 나의 이 미친 듯한 감정의 출렁임을 저지 할 방법이 없다. 나는 열정이라는 바늘 담요에 드러누워서 돌아누워도 찢리고 바로 누워도 찢리는 것 같다. 또 기름 가마 속에서 기름이 끓는 소리를 듣는 것 같고, 온 몸이 이글거리는 것 같다. 나는 왜 이 고통에서 뛰쳐나가지 않는 것일까?

딩링은 《쏘피 여사의 일기》를 통해 기존에 억압되었던 여성의 욕망에 대해 거침 없이 표현하였으며, 남성들만이 전유할 수 있고 여성에게는 금기시되어온 욕망을 판도라의 상자에서 꺼낸 장본인이다. 그리하여 남성과의 평등을 주장하며 여성 또한 주체로서 한 인격체로서 대우해 주기를 주장하였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이러한 글쓰기는 봉건제도 하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분열을 통해 드러나는 ‘무의식의 욕망’을 세상의 수면위로 떠올려 ‘여성 주체’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게끔 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쏘피 여사의 일기》를 바라 볼 때, 여류작가의 히스테리적 글쓰기와 여성적 글쓰기의 의미는 당시 다른 문학과는 구분되는 독특성과 독립성을 띄게 된다. 또한 딩링이 의식하면서 만들어 냈던 쏘피의 형상은 또 다시 무의식적인 표출에 의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이다.⁴⁴⁾

42) 杨桂欣;《观察丁玲, 丁玲女士》, 大众文艺出版社, 2001年, 196页

43) 丁玲;《丁玲全集》第3卷, 河北人民出版社, 2001年, 76页

44) 안유경 <길병서사의 관점에서 본 딩링의 《쏘피여사의 일기》>
《中国语文论丛》제74집218쪽 2016년

这禁欲主义者! 为什么会不需要拥抱那爱人的裸露的身体? 为什么要压制住这爱的表现? 为什么在两人还没睡在一个被窝里以前, 会想到那些不相干足以担心的事? 我不相信恋爱是如此的理智, 如此的科学。45)

이 금욕주의자!! 왜 사랑하는 사람의 벌거벗은 알몸을 껴안으면 안 된단 말인가? 왜 이런 사랑의 표현을 억눌러야 한단 말인가? 두 사람이 한 이부자리 속에 눕기 전에 왜 걱정할 일도 아닌 것을 걱정하는 것일까? 나는 연애가 그렇게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딩링은 ‘욕망’과 ‘타락’의 경계에서 ‘욕망’에 조금 더 집중한 작가이다. 그녀는 성적 욕망과 해소를 허락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반항의 시선을 히스테리적 글쓰기로 표현하였다. 도덕적 일탈이라는 발로를 통해 딩링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히스테리가 이전에는 정신적 죄악으로 간주되었다면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성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병적 증상의 하나로 진단되었다.46) 즉 금기의 대상에서 치료의 대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드러내놓고 털어 내어 직접적으로 욕망의 억압에 대한 과거의 역사를 치유하고자 했던 것이다. 글쓰기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규정되어지고 제도화 된 것들에 의해 종종 제한을 받는다. 이 당시 딩링의 히스테리 담론은 규정되어진 것을 와해시키고 와해되어진 조각들을 다시금 맞추어 나가 새로운 생산물을 창조해 냈다.

③ 연애지상주의자

‘사랑’은 이제 남성과 여성 모두 각 개인으로서의 주체성의 확립을 전제로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사랑’이 실제로 어떤 형식으로 구현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막연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기에는 청년들이 ‘사랑’을 하기 위해 우선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감론을박부터 해야 했던 상황들이 서술되어 있다. 쏘피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近来青年人在一处时, 老喜欢研究到这一个‘爱’字, 虽说有时我似乎懂得点, 不过终究还是不很说得清, 至于男女间的一些小动作, 似乎我又太看的明白了, 也许是因为我懂得了这

45) 丁玲; 《丁玲全集》第3卷, 河北人民出版社, 2001年, 51页

46) 김미란, 《현대중국여성의 삶을 찾아서; 국가, 젠더, 문화》. 소명출판사. 2009년, 161쪽

些小动作，于‘爱’才反迷糊，才没有勇气鼓吹恋爱，才不敢相信自己是一个纯粹的够人爱的小女子，并且才会怀疑到世人所谓的‘爱’，以及我所接受的‘爱’……⁴⁷⁾

근래 들어 젊은이들은 한자리에 모이면, 늘 이 ‘사랑(愛)’이라는 단어를 연구하는 것을 즐긴다. 가끔 나는 알 것도 같기는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여전히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없었다. 남녀 사이의 작은 몸짓에 대해서는 난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어쩌면 내가 이런 작은 몸짓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는 도리어 모호해지고 연애를 주장할 용기가 없고,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순수한 아가씨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더불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내가 받아들인 ‘사랑’을 의심하는지도 모른다…….

‘사랑’은 새롭고 낯선 것이기에 청년들은 모이기만 하면 사랑을 ‘연구’했다. 쏘피는 친구들과 달리 ‘남녀 사이의 작은 몸짓’, 다시 말하면 관능적 쾌감, 성애에 주목한다. 쏘피는 신문 읽기를 통해 “606 백령기(百零機), 미용 약수, 개명희(開明戲), 전광(眞光) 영화”가 상상하게 하는 모던한 ‘사랑’을 상상했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런 까닭으로 위축되고 스스로를 ‘순수한 아가씨’라고 믿지 못한다. 따라서 쏘피는 “나는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쏘피의 신경증은 상상된 세상에서 상상된 사랑을 실현하고자 하나, 상상과 현실사이의 간극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쏘피는 사회적인 성 규제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쏘피는 친한 친구인 위광(毓芳)과 그녀의 연인인 윈린(雲霖)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宇宙间竟会生出这样一对人来，为怕生小孩，便不肯住在一起，我猜想他们连自己也不敢断定；当两人抱在一床时是不会另外干出些别的机会。至于那单独在一房时的拥抱和亲嘴，是不会发生危险，所以悄悄表演几次，便不在禁止之列。我忍不住嘲笑他们了，这禁欲主义者！为什么要压制住这爱的表现？那些不相干足以担心的事？我不相信恋爱是如此的理智，如此的科学！⁴⁸⁾

우주에는 이런 커플도 생겨났는데, 그들은 아이가 생길 것을 무서워해서 함께 살고자

47) 丁玲;《丁玲全集》第3卷, 河北人民出版社 2001年, 60页

48) 丁玲;《丁玲全集》第3卷, 河北人民出版社, 2001年, 52页

하지 않는다. 내가 추측하건데 그들은 자기 자신들조차 두 사람이 침대에서 끌어안고 있을 때, 그 밖의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혼자서 방에 있을 때의 포옹이나 키스는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몰래 몇 번인가 해보는 것은 금지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비웃지 않을 수 없다. 이 금욕주의자들! 왜 이런 사랑의 표현을 억눌러야 한단 말인가? 걱정할 필요도 없는 일까지 생각하는 것일까? 나는 사랑이 그렇게 이지적이고 그렇게 과학적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여기서 ‘성’ 본능과 그에 대한 사회적 규제에 대해 덩링이 제기하는 의의를 느낄 수 있다. 두 커플이 불합리 하다고 한탄하면서 억압하는 성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러한 사회적 ‘성’ 규제에 관한 의의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에게 손해만 미치지 않으면 100명에게 키스했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가 생각 한다”라고 적은 곳에서 덩링 자신이 후예핀과 동거하기로 결정했을 때의 자세, 즉 “한 사람의 여성이 만약 그것을 원한다면 한 사람의 남자와 동거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와 통한다. 그러나 성욕을 느끼는 것과 성애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성애에는 타자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쏘피는 미남자인 링지스에게 대하여 강한 욕망을 느낀다. 자유로운 연애를 꿈꾸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궁리를 한다.

④ 갈등하는 자아

现在仔细一想，我惟恐我的任性，将把我送到更坏的地方去，暂时且住在这有样炉的房里吧，难道我能说得上是爱上了那南样人吗？我还一丝一毫都不知道他呢。什么都嘴唇，那眉梢那眼角，那指尖……多无意识，这并不是一个人所应许的，我着魔了，会想到那上面。我决计不搬，一心一意来养兵。我决定了，我懊悔，懊悔我白天所做的一些不是，一个正轻女人所做不出来的。⁴⁹⁾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는 제멋대로인 내 성격이 나를 더욱 좋지 않은 상태로 몰아 버릴까 두려워하고 있다. 잠시 난로가 있는 이 방에 머문다고 하자. 내가 그 남양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아직 그를 잘 모르고 있지 않은가? 입술, 눈썹, 눈매, 손가락이라는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결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데, 내가 귀신에게 홀렸다. 그러한 것을 생각하다니 나는 이사하지 않고 병을 치료 하

49) 丁玲; 《丁玲全集》 第3卷, 河北人民出版社, 2001年, 50页

는 데만 전념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결정했다, 나는 후회스럽다. 낮에 행했던 잘못들, 반듯한 여자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후회한다.

쏘피에게는 자유와 계몽을 노래하는 신여성의 열정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잠복하고 있던 보편적 여성의 욕망이 불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쏘피의 형상은 그녀가 앓고 있는 질병이라는 모티브와 투병이라는 상징적 행위 안에서 구체화되었음을 포착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술을 전개해 나간다. 예컨대 ‘국가’의 병은 ‘개인’에게 전이되기도 하며, 이와는 상반되게 개인의 신체 질병이 사회적 의미로 나타나기도 한다. 병든 육체는 사회적 현상의 본질적인 면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가 되며, 생명이 소진되어가는 육체는 도시의 병든 공간을 인식하는 물리적 토대가 된다.

결핵은 한때 욕구불만으로 인한 폐해라고 보았다. 덩링은 폐결핵이라는 질병을 메타포로 사용함으로써 쏘피의 형상을 구현해 내었다. 덩링이 창조해낸 쏘피의 형상이 기존의 5·4 신여성과 달리 억압되어 있던 여성의 성적 욕망을 풀어헤치고 있다. 쏘피의 형상이 억압되어 있던 무언가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함이 있어 보이지만, 그녀의 욕망과 그로 인한 절규는 새로운 문학사적 가치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他也许忽略了我的眼泪，以为他的嘴唇给我如何的温软，如何的嫩腻，把我的心融醉到发迷的态度里吧，所以他又挨我坐着，继续说了也许所谓爱情表白的肉麻话。

“何必把你那令人惋惜处暴露得无余呢？”我真这样的又可怜起他来。

我说：“不要乱想吧，说不定明天我便死去了！”

他听着，谁知道他对于这话是得到怎样的感触？他又吻我，但我躲开了，于是那嘴唇便落到我手上……。

我决心了，因为这时我有的是清晰的脑力，我要他走，他带点抱怨颜色，缠着我。我想：“为什么你也是这样傻劲呢？”他直挨到夜十二点半钟才走。⁵⁰⁾

그는 아마 내 눈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의 입술이 내게 얼마나 큰 따스함과 부드러움을 주었는지와 내 마음이 갈피를 못 잡을 정도로 몽롱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다시 내게 다가앉아 소위 애정표현이라는 닭살 돋는 말을 계속 해댔다.

‘왜 다른 사람이 애석하게 느끼는 점을 굳이 남김없이 드러내려고 할까?’ 나는 정말

50) 丁玲; 《丁玲全集》 第3卷, 河北人民出版社, 2001年, 77页

그가 다시 가련해지기 시작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아요. 나는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나는 이렇게 말했고, 그는 듣고 있었다. 이 말에서 그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그가 내게 다시 키스를 했지만 내가 피해 그 입술은 나의 손 위로 떨어졌다.

나는 결심했다. 그 순간 나는 아주 분명한 사고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돌아가라고 했다. 그는 원망의 얼굴을 하고서 나를 귀찮게 했다. 나는 ‘왜 당신은 이렇게 바보 같은 거예요?’하고 생각했다. 그는 밤 12시 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돌아갔다.

딩링이 내적 갈등을 쏘피에서 표출하는 것은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내고, 마침내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불안정한 모습 속에서 그녀는 자아인식의 위기감을 느끼지만, 쏘피 이전에 많은 여성들은 이러한 실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자아를 발견한다는 것은 타율적 관습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보편적 이성과 관습을 바꿀 수 있는 동력으로서 개개인의 ‘감정’과 ‘욕망’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근대인이 지녀야 할 일차적인 과제는 무릇 ‘여성’해방의 추구가 아니라 ‘자아’를 발견하는 것에 있다.

딩링의 히스테리 담론은 여성 특유의 질병에 관한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내고자 함도 아니고, 독특한 신여성을 구현해 내고자 함도 아니다. 여성으로서 여성 또한 한 인간으로서 참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딩링은 물론 여성적 글쓰기에 뛰어난 작가는 맞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관심과 자아추구를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있는 작가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은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다.⁵¹⁾

여기서 딩링 개인의 애정 역정을 한번 간략히 짚어보면, 어린 시절 외가 사촌오빠와의 결정된 정혼과 파혼에서 시작하여, 철없이 자신을 쫓아온 후예핀과의 열정적이고 순수한 사랑은 한 여성으로서의 각성과 성장의 계기가 되었고, 다시 평취평과의 이성적이고 진지한 사랑을 시도하였으나 이뤄지지는 않았다. 1931년 후예핀이 불의의 희생을 당하고 고통 속에 빠져있던 그녀는 공산당원 이었던 딩슈(丁休)와 동거하였으나 딩슈의 변절로 국민당에 체포되어 만 3년의 구금 생활로 세월을 보냈다. 그 후 탈출하여 공산당 쏘비에트지구에서 혁명문제 실천운동 중 12살 연하의 천명(陳明)과 열애 끝에 1942년 2월에 결혼하여 해로하였다. 이런 인생역경 소용돌이 속에서 딩링은 강렬한 자기주장과 욕망이 있는 여성으로서의 의식을 문학적으로 반영하는 과정 가운데 그녀

51) 안유경 <질병서사의 관점에서 본 딩링의 《쏘피의 일기》> 《中国语文论丛》 74집 2016년222쪽

자신만의 개성과 풍부한 내면세계를 유감없이 드러낼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20년대 후반 이후, 국민당의 폭정과 전체의 사슬 아래 그녀의 양심은 자연스럽게 좌익의 혁명 문학진영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었다. 이는 그간 그녀가 접촉해온 다양한 진보적 인물들과의 교류 영향과도 무관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三 쏘피와 덩링, 그리고 덩링의 부친

① 덩링의 부친

덩링 작품의 풍부성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말하면 덩링은 네 살 때 부친을 잃는다. 이 일은 덩링 일생의 중대한 불행으로, 그녀의 마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1927년부터 1948년 사이 창작한 작품들 중에 등장하는 ‘부친 형상’에 영향을 끼쳐서 덩링은 이단아 같은 모습으로 문단에 등단한다.

덩링 부친의 민감하고 소탈한 성격은 덩링의 몸에 배어 나오게 닮았다. 거기에 그녀의 필체는 대략적으로 신경질적인 경향의 쏘피 형상을 조소하면서 작품 중 인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친의 조기 요절에 직면하여, 그녀의 작품에서는 부친에 대한 이상적인 기억을 펼친다. 부친의 선량함, 똑똑하고 고상한 취미 등의 장점이 덩링의 소설 속에 충분히 표현되어 나온다. 덩링 개인으로서는 부유한 집 아가씨가 어느 날 갑자기 집도 없는 가난한 아가씨로 변하여 혹독한 생활이 시작되었고, 이러한 경험이 또 덩링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혔다. 이러한 ‘부친의 죽음’이 그녀로 하여금 수십 년간 잊을 수 없는 기억의 공포심을 표현하게 하고 있다. 남의 집 살이는 고된 수난을 겪게 하였고, 외삼촌 집에서의 소홀한 보살핌은 그녀에게 풍부한 고독을 경험하게 하였다. 이러한 민감한 심리적 경험은 작품 중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작품 중에 쏟아 내는 아버지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은 남성을 추구하고, 귀가를 거절하며, 반항적이고 고독한 사람으로 소설 속에 등장한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의 고독은 창작 의욕을 불타오르게 하였고, 부친의 요절로 인한 부친에의 이상적인 기억들이 마음속 빈틈을 메워 주어서, 소설 속에 각양각색의 ‘부친 형상’을 만들어 낸다.

덩링은 너무 일찍 또한 과다하게 고독의 맛을 보았다. 그녀는 사랑을 갈망하였고, 아버지를 모델로 삼아 남성을 상상하였다. 이런 현실 중에 아버지의 결여는 결국 상상 속에서 충족되었다. 그녀의 작품 속에 존재하는形形色색의 ‘부친 형상’은 그녀의 사상

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부친 형상’도 끊임없이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혈연 부친’이 나중에는 절대적 강세인 ‘혁명 부친’으로 회상되었다. 이것은 지식인 심리 개조의 심각한 과정을 수반하였다. 덩링의 유년기 부친의 요절을 통해, 이런 특수한 상황이 덩링에게 준 마음의 상처와 또 이런 상처가 덩링 소설의 변모에 대하여, 특히 내면의 부친 형상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서술을 시도하였다.

‘혈연 아버지’는 쉽게 이해되는 바로 자신과 혈연관계가 있는 개체, 자신의 직계 선조이지만, 덩링의 ‘아버지’의 설정은 한층 더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있어서, 기능적 의미에서 나타나는 추상적인 절대적 권위자이며 일종의 총괄 역할의 대표이다. “새로운 문화 선구자들이 폐기한 것은 문화의 군주제였다. 그것은 예로부터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 모든 육신의 부친을 능가하는 봉건적인 아버지이다. 그의 예법, 그의 인륜, 그의 도덕, 규범 더 나아가서 그의 말투는 부권 비주얼의 모든 상징을 구성하였다.”⁵²⁾ 한 인용문에 관련된 부분이 언급되어 있다. “혈연 부친과 추상적 의의상의 부친의 두 유형이 있다. 혈연 부친에 상응하는 것은 육신부친이며, 추상적 의의상의 부친은 예법, 인륜, 도덕규범의 집합체인 부친 형상의 상징을 대표한다.”⁵³⁾

덩링의 혈연 아버지 장보검(蔣保鈐 1876-1908)은 청 말의 수재로, 덩링의 조부가 죽을 때 서재에 틀어 박혀 있는 서생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집안의 보살핌도 없어서 몸이 무척 약했던 그는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는 일상생활조차 평탄치 않은 나날을 보냈다.⁵⁴⁾ 그는 타고난 자질이 있었으나 성과는 없었다. 선과 악을 구별하고, 성품은 소탈하였으며, 말 타기를 즐겨 일찍이 거금을 들여 산 좋은 말을 친구에게 그냥 증정하였다. 성격은 온화하고 선량하였으며 부부간에 싸우지도 않았다. 몸에 병이 잦았기 때문에 천천히 조용히 공부하면서, 오랜 병으로 스스로 처방 할 정도로 반 의사가 되었다. 후에 약방을 개업하여 고향사람들을 위하여 진료하고 처방하며 살았다. “관아에 근무하던 중 시골에 伊를 만나러 가서 진찰을 받다가 곧 사직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원래 성격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하고도 잘 어울리고, 만약 누구의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면 곧 도와주었다. 그는 가마를 타지도 않았으며, 한 사람만 데리고, 설령 밤이 깊고 비가 오더라도 개의치 않고 즉시 환자에게로 갔다.⁵⁵⁾ 게다가 그들을 대

52) 孟悦, 戴锦华; 《浮出历史地表》, 中国人民大学出版社, 1993年 第4, 97, 16, 14页

53) 孟悦, 戴锦华; 《浮出历史地表》, 中国人民大学出版社, 1993年 第114, 117页

54) 周良沛; 《丁玲传》 北京十月文艺出版社, 1993年版, 第362-363, 96页

55) 《丁玲母亲回忆录及诗》, 《丁玲全集》 第1卷, 河北人民出版社, 2001年, 第263页

신해 계산하기도 하여 백리 안 사람들은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⁵⁶⁾ 이런 자료에서 보듯이 덩링의 부친은 병약하지만, 도리를 지키며 성격은 아주 온화하여, 선량한 사람이었다. 이 나약한 아버지는 1908년 5월 병사하였는데 당시 32세였다. 거역의 빛을 남겨가세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덩링은 4세였다. 부친의 사망으로 덩링은 어릴 때부터 부친의 정을 받지 못하였고, 외삼촌 집에 기탁하여 사는 생활을 하는데, 누구도 덩링에게 친절하지도 관심을 가지지도 않아 덩링으로 하여금 지독한 고독을 어린 시절부터 겪게 하였다.

“사실 나의 외조부도 포부와 꿈을 가진 적이 있었다. 당신의 유신 사조의 영향으로 그도 이전에 바다 건너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법학을 공부하고 사회를 위해 일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워낙 신체가 약하고 병이 많아 당연히 고생을 참을 수가 없고 끈기가 부족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정 경제가 막혀 도중에 학업을 그만 두고 원대한 뜻을 접었다.”⁵⁷⁾

덩링의 필체로 쓴 실의에 빠진 지주계급 부친형상은 여기로부터 연유한 것이고, 부친의 유약함, 쇠락한 개성, 이루지 못한 웅대한 뜻의 결말은 덩링이 형상화한 부친의 바탕이 되었다. ⁵⁸⁾

어린 시절을 우울하게 보낸 덩링이 상해에 모습을 나타내었을 때의 모습은 흡사 남자 아이 같이 솔직 대담하게 문학도들을 대하여 수줍음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덩링의 모습의 단면은 완강한 어머니의 영향으로 사내아이처럼 길러졌기 때문이었다. 어머니의 행위와 성품은 아주 깊이 덩링에게 영향을 끼쳤다. 모친은 자신이 덩링을 사내아이처럼 키워서 큰 인물이 되기를 바랐다. 모친은 좌절할 때, 굳은 의지와 완강한 생존의 강인성을 덩링에게 심도 깊은 교육과 계시로 가르쳤다. 아버지를 잃은 덩링에게 굳세고 용감한 어머니의 존재 자체가 곧 구원이었다. 그러나 정황은 그리 간단하고 낙관적이지 않았다. 우리가 ‘쏘피’에서 볼 수 있는 덩링의 필체, 분명하고 신경질적인 쏘피의 이미지, 사실 그것은 덩링의 뺏속까지 스며든 어머니의 엄격한 교육의 영향이었다.

56) <丁玲母亲回忆录及诗>, 《丁玲全集》第1卷, 河北人民出版社, 2001年, 第263页

57) 将祖林, 李灵源; 《我的母亲丁玲》, 辽宁人民出版社, 第306页

58) 将祖林, 李灵源; 《我的母亲丁玲》, 辽宁人民出版社, 第306, 307页

“설령 부친이 우리들 자아 형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만일 집안에 고정된 부친의 이미지가 없다면, 곧 아이가 자아를 형성하는데 혼란이 있을 것이다. 이로부터 성격의 분열이 초래한다. 그래서 부친은 모든 문제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선종원의 덩링 기억)⁵⁹⁾

비록 부친의 요절이 덩링의 성격 분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덩링의 기질은 부친을 많이 닮았다. 부친은 덩링의 일생에 중요한 작용을 해 민감한 성격을 물려주었으며, 덩링을 아버지 없는 아이로 만들었다. 아이는 모친의 사랑과 더불어 부친의 사랑도 필요하다. 어느 한쪽의 사랑이 부족한 것은 완전하지 못한 것이다. 아이는 더욱더 완전한 가정을 기대하고, 결손 가정에서 성장하기를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결핍 현상이 그녀의 일생과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⁶⁰⁾ 그녀는 단지 상상 속에서 포만감을 갈망하였다.

〈나의 고백〉에서도 덩링은 “내 아버지의 모습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남기신 물건에서 아버지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집에서 식사할 때는 아주 떠들썩했고, 식사 때마다 좋은 반찬들이 올라왔다. 아버지가 어느 날 말안장에 수를 놓게 하였다. 아버지는 말을 못 탔지만 안장을 예쁘게 치장한 후 이웃에게 말을 타게 하였고, 자신은 뒤에서 따라 뛰었다.”⁶¹⁾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부친은 소탈하면서 똑똑하였고, 덩링의 필체 속에서 최고의 아버지로 재현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람의 머리 속에는 가지각색의 느낌과 관념이 가득 차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기억 저편에 숨어 있던 추억들의 영상미가 느껴진다. 감각이 원래 표류하고 있는 느낌이 확실하지 않고, 관념도 늘 바뀌고 갱신하여, 오직 이런 단편적 이미지가 시종강에 가라앉은 거석처럼 집요하게 인간의 정신적 저력을 한정한다.

아버지의 죽음은 덩링에게 정신적 상처를 가져왔다. 부친을 잃은 경험은 그녀의 마음에 강렬한 자극을 주었고, 게다가 근본적으로 그녀의 운명을 바꿨으며, 그녀를 돌아갈 집이 없는 떠돌이 부랑자로 전락하게 하였다. 또 이런 경험은 그녀에게 상상 이상의 혼란을 주었으며, 덩링의 성격 형성과 이후의 인생행로에 영향을 끼쳤다.

아버지가 필요한 시기에 아버지를 잃음으로 인한 손실을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으

59) CP 安德林: 《父亲难当》, 文韬, 文恬译, 中国妇女出版社, 1989年 第72, 79, 69, 210页

60) 阳辉编著: 《单亲家庭 - 现代生活新热点》 中国纺织出版社, 2001年版, 第57页

61) 丁玲: 〈我的自白〉, 《丁玲全集》 第7卷, 河北人民出版社, 2001年版, 第4, 5页

나, 한참이 지난 후 비로소 얼마나 큰 손실인지를 알고, 추측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인지하였다. 덩링은 ‘부친형상’에 대해 끝없는 상상을 하였다. ‘부친’이란 단어 자체가 덩링에게는 하나의 커다란 유혹이었다. 그녀에게 ‘부친’은 그녀의 필체 속에서 살고 있으며,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는 가정 속에서 진실한 부친으로 표현된다.

덩링이 어릴 적을 회상할 때는 종종 고독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난다. 돌연 부친이 사라지고, 4-5세 어린아이 때부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생활했으며, 어머니는 덩링의 학업을 위해 나가라고 하고, 덩링은 외삼촌 집에 고생스럽게 머무른다. “해가 바뀌기를 기다려 어머니가 와서 덩링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바랐으나 명절이 다 지나도록 어머니는 오지 않았다. 밝은 등불에 웃음소리가 있고 담화들이 있는 시끌벅적한 밤이었다. 덩링은 혼자서 외숙모 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듣고 있다.”⁶²⁾ 이런 거만한 웃음은 덩링의 마음에는 큰 고독의 상처로 남았다. 이미 그녀는 또래들이 받는 원만한 가정의 따뜻함과 가족애를 받을 수 없었다. 이런 고독한 경험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 되었다.

“매일 학교가 끝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아원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하고, 나는 자주 운동장 위에 혼자 머물러서 잠깐 요람에 앉아 그네를 탄다. 그때 상징위 아주머니가 나를 보러 왔다. 두덩어리 떡과 한주먹 땅콩, 더 좋은 것은 한 두 가지 이야기가 곁들여져 나의 이 어린 적막한 영혼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⁶³⁾

이런 고독체험은 덩링의 창작활동에 서로 호응하여 영향을 주었다. “덩링이 이른 나이에 소설을 쓴 것은 이 또래 여성의 내면세계와 그녀의 고독 때문이었다.”⁶⁴⁾

만일 덩링이 아버지가 있어서 모든 경험이 순조로웠더라면, 그녀는 운명의 고독함을 경험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녀의 훗날의 경험은 어린 시절의 음산하고 고독한 기억을 끊임없이 심화시켰다고 회상한다. 고독은 결국 덩링에게 가장 풍부한 일면을 보여주게 한다. 그리고 최초로 상하이에 갔을 때도 그녀 일생의 고독과 불우함이 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62) 丁玲; 《过年》, 《丁玲全集》, 第3卷, 河北人民出版社, 2001年, 第209页

63) 丁玲; 〈向警予同志留给我的印象〉, 《丁玲全集》 第6卷, 河北人民出版社, 2001年版, 第67页

64) 孟悦, 戴锦华; 《浮出历史地表》,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4年版, 第16页

② 《쏘피 여사의 일기》에서 보이는 부친 형상

《쏘피 여사의 일기》에서는 온정의 부친이 나온다. 단 쏘피는 부친 곁의 ‘작은 새’ 같은 존재는 아니었다. ‘개체의 아버지’는 추상적 의미에서 하나의 지배력으로 존재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다. 여성의 지위는 당연히 낮다.

《쏘피 여사의 일기》에서 웨이디(葦弟) 같은 남성은 여자 같이 울고, 실제로 남자 같은 기개가 없다. 겉으로는 온화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음흉한 인물인 링지스(凌吉士)도 또 하나의 숨겨진 영혼을 간직하고 있다. 이것 또한 쏘피의 이상형의 남자와는 큰 차이가 있다. 쏘피가 원하는 이상형적인 남자는 곧 아버지 같은 다정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남자인데, 쏘피가 흠모하는 링지스가 뛰어난 재능과 학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고집스레 링지스를 떠난다. 이것이 쏘피의 강인함과 굳은 심중을 나타낸다. 남자들은 영원히 쏘피가 생각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쏘피가 그들과 대면한다면 그들보다 더 성숙하고 큰 그릇이었다. 그래서 ‘부친의 정이 모자란 여자가 남자의 애정을 갈망하는, 또 남자를 성숙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쏘피의 눈에는 결코 그들이 이상적인 남성이 아니었다.

《쏘피 여사의 일기》에서는 한 중국 여성이 자신의 모순과 선택할 수 없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곤혹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그녀의 이성과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순이 얽혀있다.⁶⁵⁾

“당시 나는 부르주아 계급의 몽상을 가지고 있었다. 극단의 자유로운 하늘에서 비상하기를 바랐다. 앞날이 구만리 같은 전도가 양양한 사람이 암흑시대의 현실사회에서 벽에 부딪치면 필시 걱정의 심연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적막을 느끼고 번민하며, 하소연이 필요하고, 절규가 필요하여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 때 나는 펜을 잡고 옛 중국 봉건사회의 울분과 저항을 묘사하였다.⁶⁶⁾”

아버지의 부재는 더욱 그런 문제에 민감하게 만들어 피해의식 같은 것을 느끼게 했다.

《쏘피 여사의 일기》는 일기체 형식으로, 통계를 내보면 소설 속에서 제1인칭 ‘나’

65) 王富仁; 〈中国现代主义文学论〉, 《20世纪中国文学史论》, 修订版, (上), 王晓明编, 东方出版中心, 2003年版, 第274页

66) 丁玲; 〈我的生平与创作〉, 《丁玲文集》第5卷, 湖南人民出版社, 2001年, 第407-408页

가 1,073회 나왔고, 평균 매 문장 중에 대개 1.55개의 ‘나’가 출현한다. 이것은 쏘피가 절박하여 다 털어 놓고 싶었음을 반영한다. 쏘피는 고민하는 기조의 여성으로, 북경의 추운 겨울바람을 싫어하는 것부터,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자신이 자멸할 때까지 줄 끝 번뇌의 바다 속에 잠겨 있는데, 그녀의 고민은 일종의 시대적 고민이었다. 5·4 운동의 영향이 물러 간 후, 가혹한 현실은 젊은이들의 이상을 폭로하였고, 그들은 꿈에서 깬 이후 고민하며 갈 길이 없었다. 덕분에 5·4 운동의 역량, 반역자인 젊은 여자들이 전 중국 각지의 오랜 가정에서 뛰어 나와서 새 사상, 새 기원을 꿈꾸며, 대규모의 도시에서 이상적 생활을 찾아 나섰다. 그들의 손에 들고 있는 이론은 ‘자유연애’라는 무기로, 그들 자신은 아주 선량하고 순결하다며 주장했으나, 연애지상주의는 이미 퇴폐적이고 공허한 성격의 것을 가지고 있었다.⁶⁷⁾ 그들 주위에는 그들이 추구하는 대상과 인재들이 모여 있었다. 그녀들이 보기에 흑자는 평범하지 않고, 흑자는 매우 탁하여 견딜 수 없이 심하였다. 이렇게 쏘피들은 공허를 만나고, 절망의 처지에 처하였다. 이것은 한 두 사람이 불행한 처지에 놓인 게 아니라, 같은 경우를 당한 젊은 여성들의 공동 체험이었으며, 그 시기의 막연한 시대적 병폐였다. 이런 저기압의 시대에 휩싸여서 개인은 날아오를 수가 없었다. 단지 번민 중에 고독을 씹어야 했다. 그러나 그녀들은 고독 속에 과묵해 있지 않았다. 깨우친 여성들은 고통스러움을 쉴 새 없이 지꼈었다. 아마도 그녀들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녀들은 수없이 반복하여 자신들의 고통을 떠들썩하게 떠들었다. 쏘피의 이야기는 일기를 통해 그녀의 하소연을 하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당시의 청년들은 열렬하게 찬동하여, 쏘피의 초조함을 갈망하고 이해하는 마음들이 있었다. 소설 속에서 덩링이 끝없이 갈망하는 그 무엇이 아버지가 없음으로 인한 공허감을 채우기 위한, 또 끝없이 몰려오는 고독함을 탈피하기 위한 몸부림이란 걸 알 수 있다.

“쏘피의 그림자는 결코 나의 23세 때가 아니고, 내가 열 몇 살 때였을 것이다. 아마 내 머리 속에 존재한 것이 1년, 2년, 3년, 심지어 몇 년이었다. 나는 한 사람이, 혹은 여러 사람이, 아니면 당시 사회에 불만인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 것 같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그 사회에서 자신과 공통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찾고 있었으나,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 할 수 있는 사람을, 서로 세상을 알고 마음을 동정하는 사람을 찾지 못하여

67) 冯雪峰:〈从「梦珂」到「夜」〉, 选自《观察丁玲》, 杨桂欣编, 大众文艺出版社, 2001年版, 第211页

너무도 고독하였고, 그녀는 또 늘 이런 문제들을 돌파하려 했다. 덩링 펜 속의 인물도 그렇게 갈망하고 이해되며, 실지로 그들은 너무 외로워서 낙심하였고, 타인의 이해와 영적인 지지가 필요하였다.”⁶⁸⁾

그러나 이러한 갈망과 이해하기 위한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쏘피가 보기에 웨이디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당해보지 않아서 다소 과장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쏘피는 누군가가 분명히 보여주기를 희망하였고, 그녀를 이해해주기를 갈망하는데, 그것이 그녀에게 최고의 안위를 줄 수 있었다. 이러한 이해는 실제로 그녀들과 현실세계에서 서로 용납 할 수 없는 관건이다. 가령 친구가 그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녀들의 아버지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정신적으로 그녀가 돌아 갈 곳이 없다. 혼자 외로운 단신으로 살아갈 운명이다.

소설 속에서는 여성의 초조한 고독이 불러온, 고독한 현실에 반항하는 방식으로 남자에 대한 집착을 표현하였다. 또한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서로 상통하는 면모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강렬한 관심을 갈망하면서, 마음속의 나약함과 외로움이 축적된 갑갑한 것들을 풀기 위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항구를 희망하였다. 고독에 대한 반항으로,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는 일종의 의탁의 방법으로 작품 중에 친구와 남자가 필요한 것으로 표현한다. 그런 가상 속에서 성장한 여자는 계속해서 ‘완벽한 아버지’ 다정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 상을 추구한다.⁶⁹⁾

작품 속의 여성은 비록 아버지를 그리워했지만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절하고, 비록 남자를 바라지만 조건은 상당히 까다로웠다. 그녀들은 더욱 많은 상상 속에서 일종의 고집스러운 추구를 전개한다. 자신과 고독의 집착은 일종의 정신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 쏘피는 자기의 방이 있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과의 대화가 가능하였다. 그녀의 생각의 실마리는 하루 종일 ‘사랑’이라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광란적인 정서가 계속해서 마음의 작은 방에 숨으려 한 게 아니라, 뒤틀린 듯한 쪼개진 마음속에서 또 사랑을 탐색한다. 노신은 경제권을 잡지 못하고 집을 떠난 노라에게 두 가지 운명이 있다고 여겼다. 하나는 타락하거나 사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쏘피는 노라가 아니었고, 아버지의 집은 그녀를 억압하지 않았으며 반대로 관심

68) 丁玲:〈延边之行谈创作〉,《丁玲全集》第6卷,湖南人民出版社,2001年,第333页

69) C.P 安德林:《父亲难当》.文稻,文恬译,中国妇女出版社,1989年版,第125页

을 갖고 귀여워하였다. 그래도 쏘피는 집을 떠났다. 진심으로 방랑자가 되기를 원했다.

현실 속에서 덩링은 집에 돌아갔었다.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 어머니와 같이 들어간 학교기숙사는 조용하고 쓸쓸한 사당 같은 곳으로, 아주 단조롭고 익숙하지 않아 쓸쓸했다. 숲으로 돌아간 새가 되어 어머니 곁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마음은 높은 산 협곡사이, 거센 파도가 용솨음치는 바다와 부드러운 호수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그래서 덩링 펜 속의 쏘피는 의기소침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마음을 읽지 못하는 장님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마음을 찢어 버리는 흉악범을 만들어 내는 게 낫다며 아버지 곁에 돌아 온 것은 원래의 방식으로 돌아 왔음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들의 아물지 않는 상처를 천천히 봉합해 주어서 봉합하는 그 순간 마치 마취를 한 것처럼 병도 나았고 마음도 평안하였다. 그래서 쏘피는 계속해서 도시에 머무른다. 이것은 부활한 여성이 자아를 굳게 지키는 방법으로 볼 수 있겠다.

2) 링지스(凌吉士)와 평취평(馮雪峰)

1월 1일 일기 중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의 이름이 링지스(凌吉士)이다. 키가 크고 잘생긴 미남으로 등장한다.

那高个儿可真漂亮, 这是我第一次感觉到男人的美, 从来我还没有留心到。只以为一个男人的本行是会说话, 会看眼色, 会小心就够了。今天我看了这高个儿, 才懂得男人是另铸有一种高贵的模型。⁷⁰⁾

그 키다리는 정말 잘 생겼다. 이것은 내가 처음으로 남자의 아름다움을 느낀 것으로 나는 지금껏 그러한 것에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었다. 남자는 본래 말을 잘하고, 눈치를 잘보고, 조심할 줄 알면 된다고 여겼다. 오늘 이 키 큰 남자를 보고서야 비로소 남자가 또 다른 고귀함으로 주조된 모형임을 알게 되었다.

이 첫 대면에서 쏘피는 링지스에게 반한다. 잘 생긴 남자를 가까이서 자세히 봄으로

70) 丁玲; 《丁玲全集》第3卷, 湖南人民出版社。2001年, 46页

서 지금까지 갖고 왔던 남자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꾸기도 한다. 동양적인 사상의 중국사회에서 '전통'과 5·4의 영향 하에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있던 작가 덩링의 사고방식의 변환이라고 볼 수 있겠다. 전통적인 남성들 속에서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한 덩링이 쏘피라는 다른 시각을 가진 여성을 내세워 '남성'의 반봉건 반제국주의의 시대사조와 연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사회 범주 내의 남성 에 대한 인식을 달리 표현하기 시작한다.

是的，这几天几夜我无时不神往到那些足以诱惑我的。为什么他不在这几天中单独来会我呢？他应当知道他不该让我如此的去思慕他。他不会拒绝去听他所说的一些爱慕我的话，我还将令他知道我所要的是些什么。⁷¹⁾

그렇다. 요 며칠 동안 나는 나를 사로잡기에 충분한 그 모습을 그리워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는 어째서 따로 나를 보러 오지 않는 것일까? 그는 내가 이렇게 그를 그리워하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를 보러 와서 그도 나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야 공평하다. 만약 그가 온다면 나는 그가 말하는 애정 어린 말들을 기꺼이 들을 것이다. 나는 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알려 줄 것이다.

만난 지 4일째 되는 날의 일기다. 왜 안 오는지 궁금해 하고 자신을 온종일 그 키 큰 남자를 생각하고 있다. 일기 형식의 소설이라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쓸 수가 있는 것을 십분 활용하는 것 같다. 안절부절 못하며 온 정신이 그리로 쏠리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 쏘피는 고독하다. 혼자 살면서 병까지 있는 상태이므로 다른 활동을 못하고 있으나 생각만은 끝없이 할 수가 있다. 또한 상상의 나래를 맘껏 펼 수 있는 상태이니 더욱 더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我只好又把书丢开，我说：“以后你不要再向人说在替我补英文吧，我病，谁也不会相信这事的。”他赶忙便说：莎菲，我不可以等你病好些教你吗？莎菲，只要你喜欢。”我只好在他穿大氅的当儿向他说：“原谅我吧，我有病！”他会错了我的意思，以为我同他客气。“病有什么要紧呢，我是不怕传染的。”⁷²⁾

71) 丁玲;《丁玲全集》第3卷, 湖南人民出版社, 2001年, 49页

72) 丁玲;《丁玲全集》第3卷, 湖南人民出版社, 2001年, 52页

나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책을 밀어 버리고 말했다. “앞으로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내 영어공부를 도와준다고 말하지 말아요. 나는 병들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런 일을 믿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가 급히 말했다. “쏘피 당신의 병이 조금 좋아진 후에 가르치면 안 될까? 쏘피 당신이 좋다면 말이야.”

할 수 없이 그가 외투를 입을 때 그에게 말했다. “나를 이해해 줘요. 나는 아파요.” 그는 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내가 그에게 예의를 차리는 것이라 생각했다. “병이 무슨 문제요, 나는 진염되는 거 두렵지 않아요.”

두 사람은 이미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쏘피는 첫눈에 링지스에게 끌렸고, 한동안 오지도 않았던 링지스도 나중에는 이 예쁜 아가씨를 좋아하게 되어 집에 드나든다. 그리고 대화하면서 폐병이 옹는 것조차 개의치 않는다고 한다. 영어를 가르쳐 준다는 핑계를 만들면서 링지스는 친절하게 여성을 대한다. 더군다나 예쁜 아가씨여서 더더욱 친절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상대방에게 베풀려고 한다.

真的，在他的最近的谈话中，我懂得了他的可怜的思想，我需要的是什么？是金钱，是在客厅中能应酬买卖中朋友们的年轻太太，是几个穿的很标致的白胖儿子。他的爱情是什么？⁷³⁾

그의 최근 말 속에서 나는 그의 형편없는 생각을 알 수 있었다.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던가? 돈이며, 사업하는 친구들을 응접실에서 접대할 수 있는 젊은 아내이며, 예쁘게 차려입은 흰 피부와 통통한 살이 찐 아들 몇 명이다. 그의 사랑은 무엇이던가?

쏘피는 많은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살기를 바라는 여성이다. 그런데 여지껏 좋아하던 남성의 꿈을 듣고 너무 현실적인 점들에 적잖이 실망을 한다. 자신이 비록 폐병을 앓고 있고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는 하나 쏘피는 삶에 대한 생각이 많았다. 아주 평범한 소박한 꿈을 꾸는 남자인 링지스에게서는 그 방법을 찾을 수 없겠다고 실망을 한다. 링지스가 흰칠한 외모에 키가 크고 친절하며 자상한 남자임에는 틀림 없지만 그 내면에 있는 생각은 평범하다.

我有如此一个美的梦想，这梦想是凌吉士给我的。然而同时又为他而破灭。我因了他才能满饮着青春的醇酒，在爱情的微笑中度过了清晨，但因了他，我认识了”人生这个玩艺，而灰

73) 丁玲;《丁玲全集》第3卷, 湖南人民出版社, 2001年, 62页

心而又想到死; 至于痛恨到自己甘于堕落, 所招来的, 简直只是最轻的刑罚!⁷⁴⁾

내게는 링지스가 나에게 준 아름다운 꿈이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때문에 깨져 버렸다. 나는 그 때문에 청춘의 술을 흠뻑 마셨고, 사랑의 미소 속에서 이른 아침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낙심하고 또 죽을 생각을 했다. 자신이 타락을 자초해 초래한 일인데 정말 그저 너무 가벼운 형벌이라는 사실이 원망스러운 지경이다.

사랑의 감정이 깊어질수록 쏘피는 절망한다. 링지스가 삶의 활력을 줬는가 하면 또 그로 인해 절망에 빠지기도 한다. 친절한 링지스는 존재할 뿐이었는데 선한 이가 되었다 악한 사람이 되었다 한다. 어떤 의도도 없었는데도 결과는 그렇게 나타났다. 쏘피로 하여금 생과 사를 경험하게 만든 링지스는 사실은 아주 평범한 남성이다. 잘생겼으나 꿈도 소박하고 평범하게 살고 있고 또 장래도 그리 살기를 바라는 남성이지만, 쏘피에게는 희망과 좌절을 안겨준 남자가 되었다. 마지막 만남에서도 쏘피가 원하니까 아무런 반발도 없이 그냥 손을 흔들며 사라진다. 건강한 육체를 가진 남자로서 쏘피에게 지금껏 느끼지 못한 성적인 에로틱한 사랑을 알게 해 준다.

소설 속 링지스는 덩링이 한때 깊은 사랑에 빠지게 한 평쇄평이란 실제 인물이었다. 덩링을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사랑에 빠지게 한 남자 평쇄평과의 과정을 덩링은 글로 쓸 수 밖에 없었다. 평쇄평과의 인연은 1927년부터 시작한다. 그에 대한 과정을 알면 《쏘피 여사의 일기》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이해하게 된다.

1925년 덩링은 가장 친한 친구인 왕젠홍의 죽음을 대한다. 그리고 후난까지 쫓아 온 후예핀과 상산(香山) 벽운사 부근에서 동거 생활에 들어갔다. 둘은 조용한 곳에서 맘껏 사랑을 나누었다. 생활고로 인하여 베이징으로 돌아와 《멍커(梦珂)》를 발표한 후 갈등을 겪던 덩링은 뜻밖에 중국 공산당이라고 당당히 말하는 남자를 만난다. 일본어를 가르쳐 준다는 이목구비가 뚜렷한 청년 평쇄평(冯雪峰)을 알게 되어 1927년 겨울 몇 번 만남 후 정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에 빠진다. 남편이 있는 입장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상대를 만난 것이다. 다만 덩링이 행동 면에서 생각을 못 따라 갔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헌신적인 후예핀과 헤어질 뻔 하였다.

덩링은 당시 영혼 깊은 곳에 무거운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후예핀은 그런 그녀

74) 丁玲; 《丁玲全集》第3卷, 湖南人民出版社, 2001年, 64页

와 함께 인생을 슬퍼하거나 부조리한 현실생활을 한탄 하는 것 외에 달리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덩링도 자신을 지극히 아껴주며 진심으로 사랑하는 후예핀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심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어 갔다. 혼란 속에 방황하던 덩링에게 평쉘핑은 서광을 추구하고 광명을 위해 분투하는 투사였기에 일본어 학습을 위해 만난 애초의 목적은 뒷전에 두고 두 사람은 중국의 상황과 문화에 대하여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었으며, 서로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공유하였다. 후예핀은 덩링의 마음 속에 다른 남자가 들어 있음을 알고 절망하였다. 덩링 역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였으나 마음으로는 이미 평쉘핑을 따라 나서는 자신을 상상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다.

본래 덩링의 평쉘핑에 대한 감정은 이야기를 부담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이성 친구 같은 관계에서 시작되었다. 시간이 지나고 그에 대한 감정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기울어져 명실상부한 연인이라 칭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덩링은 스스로의 감정을 억눌러가며 도덕적 속박이라는 이성범주를 고집하여 안착한다. 이런 의미에서 덩링은 이성적 경향이 보다 강한 여성임에 틀림없다. 심리학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성적 통제와는 별개의 차원으로 존재하는데 양자가 어떤 때 모순될 경우 극단적으로 상처되는 방향으로 치닫기도 하는 전혀 통제 불능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덩링과 후예핀도 처음 만났을 때 어린 아이처럼 장난삼아 사랑에 빠져 보듯 천진난만한 환상 속에 일체의 세속적인 일에 관여하지 않는 순수함을 지향했다. 그 후 덩링이 평쉘핑에 대한 감정이 그리 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후예핀과의 순진무구하고 해맑았던 추억 때문이며, 불길처럼 타오르는 한 남자의 지극한 사랑 때문'⁷⁵⁾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평쉘핑을 알게 된 후 덩링과 후예핀 모두 괴로움에 빠졌으며 삼각관계 속에서 헤어 나지 못하였다. 덩링은 자신의 감정 때문에 사랑하는 남자가 고통에 못 이겨 생의 의욕조차 상실해 가는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면서, 또한 평쉘핑을 따라 나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상적인 사랑을 실현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번민이 점점 깊어갔다.

1928년 봄, 덩링과 후예핀은 결단을 내려 베이징을 떠나 상하이로 향했다. 당시 상하이의 상업을 활기를 띄고 있었고 덩링의 원고를 줄곧 신문학계의 권위 있는 잡지인 상

75) 宗誠 著 《丁玲》 66页

우출판사의 《소설월보》에 실어 주었기 때문에 남방생활에 막연한 기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평쇄평이 얼마 후 일 때문에 남방으로 내려와 덩링 내외가 살향저우에 거처를 찾는 일을 도와주고 나서 다시 풍파가 시작되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덩링은 다시 마음을 굳혔다. 후예핀과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시 헤어질 수 없다고 결심하고 세 사람이 친구 사이로 잘 지내기를 원했다. 공교롭게 7월이 되어 평쇄평이 당 조직으로부터 전출 명령을 받고 떠나게 되었다. 이로서 감정의 풍랑은 멈추어졌다. 하지만 덩링은 자신의 평쇄평에 대한 감정이 그녀가 지향하고자 하는 우정인지 욕망인지 애정인지 좀처럼 확정 지을 수 없었다. 덩링은 자신만의 비밀을 가슴 속에 파묻어 두고 다시 꺼내어 돌아보는 것을 두려워했다. 즉 평쇄평에 관한 자신의 감정은 우정으로 시작한 심지어 후예핀마저도 저버릴 수 있는 열정적인 사랑이며, 그에 대한 확인이나 행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내세울 수 없는 처지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쏘피 여사의 일기》는 이루지 못한 평쇄평과의 사랑이야기를 폐병 환자라는 극단적인 설정을 내세워 일기체 형식으로 아무런 숨김없이 솔직하게 써나간 소설이다.

덩링은 일찍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는 후예핀이고, 가장 잊지 못할 이는 평쇄평”⁷⁶⁾이라고 한 바 있다. 평쇄평은 덩링의 가슴 속의 연인으로서, 깊이 간직하며 평생을 살아온 그녀만이 간직한 비밀스런 사랑 이야기이다.

3) 웨이디(葦弟)

웨이디는 소설 속에서 가장 처음 나타난 인물이면서 가장 마지막까지 쏘피 옆을 지키는 남성이다. 실지로는 쏘피 보다 네 살이나 많지만 쏘피와의 인연은 이미 오래되어 쏘피가 언제든 부르는 착한 동생이자 친구로 항상 쏘피 곁에 머무른다.

吃过午饭，葦弟便来了，我一听到那特有的急遽的皮鞋声走廊的端传来时，我的心似乎便从一种窒息中透出一口气来感到舒适。但我却不会表示，所以当葦弟近来时，我只默默的望

76) 丁玲; 〈不算请书〉, 《文学》 1卷 3号 1993年

着他；他以为我在烦恼，握紧我一双手，“姊姊，姊姊”那样不断的叫着。我，我自然笑了！……我懂得那收藏在眼下面，不愿给人知道的是些什么东西！这有多么久了，你苇弟，你在爱我！但他捉住过我吗？自然，我是不能负一点责，一个女人应当这样。⁷⁷⁾

점심을 먹고 나자 웨이 동생이 왔다. 그 특유의 성급한 구두 발자국 소리가 저 복도 끝에서 들려오자 나의 마음은 마치 숨이 막혔다가 탁 트인 것처럼 시원해졌다. 그러나 나는 표현할 줄 몰라서 웨이디가 들어 왔을 때 그를 묵묵히 바라보기만 했다. 그는 내가 또 번뇌하고 있다고 여기고는 내 두 손을 꼭 잡고 “누나, 누나”하고 연신 불러댔다. 나는 저절로 웃음이 났다. …… 눈꺼풀 아래 숨겨둔 다른 사람에게는 들키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얼마나 오래 되었을까? 웨이디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나를 사로잡은 적이 있던가? 물론 나는 책임을 질수 없고 여자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

웨이디가 진작부터 쏘피를 좋아했으나 쏘피는 그에게서 남성성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래서 웨이디의 감정을 장난처럼 이용하고, 알면서 모르는 척 웃어넘긴다. 웨이디는 그것조차 모르는 채 언젠가는 받아 주려니 혹은 기다려야지 하는 기분으로 마냥 좋아하고 마냥 기다리고 있다.

他们都把眼泪到我手上，好像我就要长远离开他们走向死之国一样。尤其是苇弟，哭得现出丑脸。……我更笑了，这里面有七八张是苇弟的单像，我有容许苇弟吻我的手，并握着我的手在他脸上摸擦，⁷⁸⁾

그들이 나의 손위에 눈물을 흘렸다. 마치 내가 곧 죽음의 나라로 멀리 떠날 것처럼. 특히 웨이디는 얼굴이 일그러지도록 울었다. …… 나는 더욱 웃었다. 그 안에는 웨이디의 사진이 일곱 여덟장 들어 있었다. 나는 또 웨이디가 나의 손에 입 맞추고 나의 손을 잡아 그의 얼굴에 문지르는 것을 허락했다.

웨이디가 얼마나 쏘피를 좋아했는지 보여준다. 남자가 눈물을 흘리며 울고 쏘피가 정신이 들자 그녀의 손에 키스와 문지르는 등 적극적인 행동으로 애정을 표현한다. 이어서 시작된 병원생활에서도 웨이디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찾아가 지극정성으로 쏘피

77) 丁玲;《丁玲全集》, 第3卷, 湖南人民出版社, 2001年, 43页

78) 丁玲;《丁玲全集》, 第3卷, 湖南人民出版社, 2001年, 56页

를 돕는다. 그런데 링지스가 나타나자 웨이디는 노골적으로 화를 내고 질투를 심하게 한다.

我正在无法时，凌吉士来了。我以为他们还不认识，而凌吉士已握着苇弟的手，说是在医院见过两次。苇弟冷冷的不理他，我笑着向凌吉士说：“这是我的弟弟，小孩子，不懂交际，你常来同他玩吧。”苇弟真的变成了小孩子，丧着脸站起身就走了。⁷⁹⁾

내가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링지스가 왔다. 나는 그들이 서로 모르리라 생각했는데 링지스는 이미 웨이디의 손을 잡고서 병원에서 두 번 보았다고 말했다. 웨이디는 냉랭하게 그를 아는 척 하지 않았다. 내가 웃으며 링지스에게 “이쪽은 내 동생이에요, 어린아이라 사람을 사귄 줄 몰라요. 당신이 자주 와서 놀아 주세요.” 웨이디는 정말 아이처럼 변해 상심한 얼굴로 일어서서 나가버렸다.

“我不喜欢他!” “我不喜欢那高个子! 那同你好的!”啊，我才知道原来是恼我的气。⁸⁰⁾

“나는 그가 싫어!”, “난 그 키다리가 싫어. 그 사람이 누나랑 잘 지내잖아!” 아 나는 비로소 웨이디가 나에게 화가 난 것임을 알았다.

웨이디는 노골적으로 링지스를 싫어하고 그런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 미묘한 두 남자의 분위기가 한 여자를 같이 사랑한다고 주장한다. 쏘피의 마음은 링지스를 사랑하고 있고, 웨이디에게는 동생 보듯이 자상히 대하고 있다. 쏘피가 웨이디의 마음을 모르는 않으나 동생을 대하는 감정과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별개라는 것이다. 웨이디는 자신이 더 링지스 보다 누나를 더 좋아 한다고 생각하고 험신하면서, 갑자기 나타난 큰 키에 훗칠한 미모를 갖춘 남자를 눈에 가시인 것처럼 대한다. 웨이디의 지고지순한 사랑이 난관을 만나자 화내고 마구 울고 하는 등의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하면서 숨기지 않고, 어린애같이 행동하고 단순하게 드러낸다. 이런 면에서 쏘피는 웨이디를 사랑하지 않고 좀 더 남성으로서 느껴지는 링지스를 이성으로 좋아한다.

那天晚上苇弟赌气回去，今天又小心翼翼地自己来和解，我不觉笑了，并感到他的可爱。

如若一个女人只要能找得一个忠实的男伴，做一身的归宿，我想谁也没有我苇弟可靠，我笑

79) 丁玲;《丁玲全集》第3卷, 湖南人民出版社, 2001年, 60页

80) 丁玲;《丁玲全集》第3卷, 湖南人民出版社, 2001年, 61页

问: “苇弟还恨姊姊不呢?” 他羞惭的说:“不敢。姊姊, 你了解我吧! 我除了希你不摒弃我以外不敢有别的念头。一切只要你好, 你快乐就够了。”这还不真挚吗? 比起那白脸庞红嘴唇的如何?⁸¹⁾

그날 저녁 웨이디가 화가 나서 돌아가더니 오늘 다시 조심스럽게 스스로 화해를 하러 왔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웃었고 그가 귀엽다고 느껴졌다. 한 여자가 진실한 남자를 찾아 일신의 귀착점으로 삼으려고만 하면 누구도 웨이디 만큼 믿음직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내가 웃으며 물었다. “아직 나를 미워하니?” 그가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감히 어떻게 그래요. 누나, 저를 이해해주세요. 누나가 저를 버리지만 앓는다면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아요. 누나가 좋고 즐거우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요!” 이러니 진실하지 않은가? 그 흰 얼굴에 붉은 입술을 한 사람과 비교하면 어떤가?

웨이디는 쏘피에게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친구이다. 자신이 그녀를 사랑한다고 믿고 행동해 오다가 쏘피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알면서도 며칠 동안 생각한 끝에 쏘피를 찾아가 화해를 청하고 쏘피만 좋다면 자신은 괜찮다고 웃으며 말한다. 그만큼 쏘피를 아끼고 있어서 쏘피를 떠나기 보단 곁에 머물기를 마음으로 원하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상대가 원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게 사랑에 관계된 것일지라도. 한바탕 울고 나서 정리를 현명하게 하는 그 모습이 정말 귀엽다. 자신도 모르지만 부드러운 인품을 가진 모범적인 남성이다.

반면 당시 중국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남성상이다. 쏘피의 갈증에 결코 부합시킬 수 없는 남자였다. 반봉건적이 아닌 여전히 봉건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쏘피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선진화 될 수 없는 이미지의 남성상으로 표현한다. 착하고 순정적이며 오직 한 여자만을 사랑한다는 그것만으로 자신의 전부를 준다고 믿고 있다. 더 진보하여 쏘피의 영혼을 어루만지지는 못한다.

제 4 장 《쏘피 여사의 일기》의 주제 분석

81) 丁玲; 《丁玲全集》第3卷, 湖南人民出版社, 2001年, 73页

《쏘피 여사의 일기》 속에서 볼 수 있는 주제에 대하여 여러 평론가들이 많은 의견을 내 놓았지만, 본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 그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자유로운 성애의 표현과 급격히 변화해야 하는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끌려가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갈등하는 자아에 대해서이다.

《쏘피 여사의 일기》가 쓰여졌던 개화기의 중국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주제는 새로운 것이면서 동시에 보편적이 주제였다. 여기서 보편적이라는 것과 새롭다는 것이 같이 이해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개화기라는 상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일본과 서구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중국에 개항을 요구하면서 일으킨 변화는 표면적으로 볼 때 주로 정치적, 경제적 분야에서 일어난 것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일어난 세계관의 변화 또한 중요한 것이었다. 이 시기를 통해 주체와 객체를 동일적으로 인식하던 중국의 일원론적 사유체제가 흔들리고, 너와 나, 혹은 주체와 객체의 대립구조를 상정하여 세계를 이해하는 서양의 사유체제가 영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로써 중국에는 근대적 자아개념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5.4운동의 근본정신을 이루는 개성해방의 주제로 등장하였다. 여기에 자유연애의 주제가 포함된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한 자유연애의 문제는 사실 남자와 여자의 쌍방이 자아라는 기초를 가지고 맺는 영혼과 육체의 교류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⁸²⁾ 중국사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였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는 남.녀의 문제를 주로 육체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그 정신적 교류에는 무관심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개체화된 성(sexuality)이라는 개념이 세워져 있지 않았다. 나이가 성장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기 생명력의 내용성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 그래서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성(姓)은 언제나 ‘번식’과 같은 의미였다.⁸³⁾

성의 문제를 이렇게 이해했을 때 남.녀의 관계는 자연히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즉 독립된 개체간의 자연스런 靈.肉의 교류를 일종의 범죄로 보는 해석이

82) 宋永毅: 《老舍与中国文化观念》, 上海学林出版社, 1988年, 88-99页

83) 孙隆基: 《中国文化的深层构造》, 集员社, 1985年, 199页

그 하나이고,⁸⁴⁾ 남녀 관계를 번식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의식을 수용한 개체가 ‘성’, 혹은 사랑의 문제에 접할 때 일으킬 수 있는 반응은 심리적 측면에서의 금욕의식과 생리적 측면에서의 비정상적인 방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금욕과 방종의 교착이 《쏘피 여사의 일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쏘피 여사의 일기》에 제시되어 있는 연애, 혹은 애정, 나아가 성애의 문제는 위와 같은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5.4시기에 제시된 자유연애는 대부분 정신적 사랑을 강조하는 한편 소설에서는 그것이 육체적 성애 쪽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보편적 추세였던 자유연애가 여성을 쾌락적 수단으로 보던 종래의 전통적 여성관에 대한 강력한 반동으로 제기된 것이었다면, 소설 속의 성애는 특이한 주제임이 틀림없다. 즉 자유연애라는 시대적 주제와 ‘성’이라는 본능의 주제가 얽혀 있는데다가,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금욕과 방종이라는 모순된 태도가 내포되어 있는 까닭에 새로운 가치관에 의한 낡은 가치관의 대체라는 모습대신, 그와 판이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의 젊은 지식인들에게 유행하였던 자유연애의 중심내용은 상호간의 영혼교류에 대한 희구였었다. 영혼적 교류 없이 육체적으로만 맺어지는 구세대적 결혼에 대한 반항과 여인을 존경의 대상으로 보는 서구적 관념이 결합되어 하나의 당시의 시대풍조를 이루었던 것이다.

1) 자유로운 性愛 표현

《쏘피 여사의 일기》는 표층구조에 있어서 성적 욕망과 억압이 주요한 갈등대립 구조를 이루고 있다면, 심층구조에 있어서는 상대에 대한 요구와 욕망의 엇갈림과 만남이 이 텍스트를 관통하고 있다. ‘나’가 상대, 특히 남자에게 바라는 요구는 ‘나’를 제대로 이해해주고 ‘나’를 여성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해 여성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반면 ‘나’가 상대에게 바라는 욕망은 상대를 통해 성적 욕망을 충족하여 희열을 느끼는 것이다. 전자의 요구가 추상적인 것이라면, 후자의 욕망

84) 우리가 떠 올릴 수 있는 말들, 예로서 ‘男女七岁不同席’, ‘万恶淫为首’ 등과 같은 말들은 바로 그러한 가치관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은 구체적인 것이다. ‘나’는 이 추상적 요구와 구체적 욕망이 하나의 대상에게서 일치되기를 원하지만, 작품 속의 ‘나’의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쏘피는 애당초 웨이디에게서는 사랑의 대상으로서 요구도, 욕망도 아예 느끼지 못한다. 그러다가 링지스를 보는 순간 쏘피는 그 붉고도 보드라우며 움푹 패인 입술을 욕망한다. 그를 쳐다보지도 못하던 쏘피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링지스를 몇 번이고 대담하게 쳐다봤으며, 그의 동작 하나하나 모두 훑어보면서, 어느 곳이나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의 아름다운 용모로 말미암아 성적 욕망에 빠져 버린 쏘피는 추상적 요구를 잠시 사고의 바깥에 밀쳐놓는다. 구체적 욕망을 마주한 쏘피는 자신 역시 링지스의 욕망의 대상이 되기를 갈구한다. 그리하여 쏘피는 “내가 그를 이처럼 그리워하게 해서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 마땅하다. 그는 마땅히 나를 찾아주어야 하고, 그도 나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말해야 옳다.”라고 생각한다. 쏘피가 링지스를 욕망하듯이 링지스 또한 쏘피를 욕망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쏘피는 당위의 차원에서 자아의 욕망과 타자의 욕망의 하나 됨을 믿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쏘피는 한걸음 더 나아가 링지스가 능동적으로 쏘피를 욕망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쏘피와 링지스의 관계가 드디어 쏘피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을 잡는 등 가벼운 육체적 접촉을 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을 때, 쏘피는 비로소 그동안 잠시 체쳐놓았던 사랑의 추상적 요구에 대해 회의하고 고민하기 시작한다. ‘나(쏘피)’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한데 끝내 분명하게 말하지는 못 하겠다”면서, 남녀 사이의 작은 행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듯하지만, 어쩌면 이 때문에 오히려 ‘사랑’에 대해 모호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사랑’을 의심하는 지도 모른다”⁸⁵⁾라고 고백한다. ‘나’는 그 동안 사랑의 추상적인 요구와 구체적인 욕망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채, 성적 욕망을 사랑이라 착각하고 오해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사랑’의 추상적인 요구와 구체적인 욕망, 이 양자는 사랑의 대상에 대한 환상이 깨짐으로서 차이를 드러낸다. 링지스의 아름다운 용모 뒤에 비열한 속물 근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쏘피가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은 “물론 난 한시도 그 키다리를 사랑한다는 걸 인정 해본 적이 없다”⁸⁶⁾라고 링지스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85) 丁玲; 《丁玲全集》, 地3卷, 河北人民出版社, 2001年, 60页

86) 위의 책 62쪽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 건달이 그림다. 그가 오늘 올까? 언제쯤? 아침에? 오후에? 저녁에?”⁸⁷⁾라고 끝없이 생각한다. 부정당한 것이 그에 대한 추상적인 요구라면, 그리움은 그에게 바라는 구체적인 욕망이 여전함을 반증한다.

쏘피가 괴롭고 초조한 것은 추상적인 요구를 부정하면 할수록 구체적인 욕망이 더욱 강렬해진다는 사실 때문이다.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다짐할수록 그에 대한 욕망이 눈덩이같이 더 커진다. 그래서 링지스가 며칠 동안 찾아오지 않자 쏘피는 “그를 한번만 이라도 다시 만나고 싶다.”⁸⁸⁾고 토로하고 링지스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마음이 쿵쾅거리며, 오랜만에 찾아 온 링지스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자마자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은 심정이 된다. 번민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나’의 추상적인 요구와 구체적인 욕망의 일치를 억지로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쏘피는 마침내 “아! 그의 세상이 아무리 형편없다 하더라도 나로 하여금 미친 듯이 정을 품게 만들었던 건 의심할 여지없다. 그렇다면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걸 왜 인정하지 않겠는가? 나의 눈에는 그가 전기 속의 연인으로 보인다.”⁸⁹⁾고 고백한다. 그러나 쏘피의 일시적인 안정감은 며칠 만에 금세 무너지고 만다. ‘나’는 링지스를 욕망하지만, 여전히 ‘나’가 바라는 요구에서 멀리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랑의 추상적인 요구와 구체적인 욕망은 다시 철저히 분리된다. 마침내 링지스가 키스했을 때, 쏘피는 “아름다운 그가 키스했다”가 아니라 “비열한 인간이 키스했다.”고 받아들인다, 구체적인 욕망은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추상적인 요구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링지스의 키스를 받은 후 쏘피는 마음속으로 “내가 승리했다. 내가 승리했다!”⁹⁰⁾라고 생각한 것은 바로 구체적 욕망의 허망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사랑의 추상적인 요구와 결합하지 않은 구체적인 욕망의 허상을 깨달은 쏘피는 더 이상의 지난 시간에 얽매인 ‘나’가 아니었다. 이처럼 링지스를 만난 초기의 쏘피는 자아의 욕망이 타자의 욕망과 일치하리라는 믿음을 갖고 출발하였으나, 마지막에는 추상적인 요구와 구체적인 욕망의 불일치를 깨닫고 새로운 자아로 태어난다.

1921년 위다후(郁達夫)가 발표한 《沈淪》은 작품속의 性愛에 대한 대담한 묘사로 당시 문단에 파란을 일으켰다. 작품 속의 주인공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고독한 인물로

87) 위의 책 63쪽
88) 위의 책 65쪽
89) 위의 책 41-43쪽
90) 위의 책 76쪽

서 ‘성’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좌절을 겪는 젊은이를 묘사함으로써 전통적인 창작관습의 한계를 혁파하고 독립성과 寫實性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작품의 주인공은 위다후가 자신을 청사진으로 삼아 약간의 설정을 더하여 만든 형상이며 소설의 전체적인 내용역시 위다후 자신이 일본유학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사실주의적 색채가 농후한 작품이었다.

그에 비교해서 덩링의 《쓰피 여사의 일기》는 1928년 발표한 여성의 성애를 다룬 작품으로, 같은 1920년대 중국의 젊은 여성이 또 한 차례 파란을 일으킨 작품이다. 두 작품 모두 자신의 ‘자전적’소설이라는 점과 ‘성’이라는 문제에 대면하여 ‘자아’를 찾는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는 낭만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성적’ 체험을 아무런 여과 없이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본능’을 ‘고백’이라는 방식으로 풀어나간 소설이었다.

2) 자아실현

소설 속의 쓰피는 모순 덩어리이고 종잡을 수 없는 성격의 소유자로 묘사되어 있다. 특히 웨이디와 링지스에게 대하는 감정은 상당히 모순되고 복잡한 성격의 소유자로 만들었다. 물질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에서 모두 절망적인 상태로 설정 되어 있어서, 쓰피 성격의 두 양상을 보여 주는데 강건과 나약, 거만과 공허, 반항과 타협이 그것이다. 이것은 현실과 이상의 너무 다른 상태에서 오는 모순된 모습이다.

쓰피는 사람들에게 사랑 받기를 원했지만, 그들에게 분명하게 ‘사랑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단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줘서 다가와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녀 뜻대로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갈등을 겪는다. 끝내 링지스를 차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온 마음을 바쳐 그의 사랑을 갈구한다. 그러나 링지스에게는 비열한 영혼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더욱 큰 갈등을 초래한다.

쓰피는 진실된 감정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로 부터 진실된 감정을 받기 원했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에도 친구들의 진실된 감정을 원하였고 다른 사람들의 이해와 관심과 사랑과 충실을 바란다. 이는 결코 이기적이라서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의 합리적인 바람이다. 문제는 쓰피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지만 쓰피 자

신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我知道! 在那两颗只望到我眼睛下面的跳动的眸子中, 我准懂得那收藏在眼睑下面, 不愿给人知道的是些什么东西!⁹¹⁾

나는 안다 그의 두 눈이 나의 눈 속에서 요동치는 눈동자를 바라 볼 때, 그의 얼굴 속에 감춰진 남이 알기를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안다.

위의 인용문에서 나타나듯이 쏘피는 남들이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을 싫어하고, 또 남들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것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웨이디가 자신의 곁에 있는 것을 원치 않지만, 막상 떠나고 나면 또 있어 주기를 바라는 쏘피의 모순성은 결국 사람과 사람과의 진정한 이해와 순수한 우의와 감정을 갈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웨이디는 쏘피를 무작정 좋아하고 또 쏘피의 애정도 원한다. 쏘피 역시 웨이디가 진실한 청년이고 성실하게 쏘피 곁을 지키며 자상하게 보살피 주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웨이디의 무조건적인 헌신만이 전부가 아니며, 그것만으로 사랑의 감정이 솟아나는 것은 더욱 아니었다, 사상의 평범함은 쏘피의 내면세계를 알지 못하였다. 웨이디 뿐만 아니라 종종 드나드는 지인들도 쏘피의 갈망하는 영혼의 소리는 전혀 모르며 알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친구들일 뿐, 그나마 때로는 쏘피에게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함께 있어도 외롭게 만드는 지인들, 그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웨이디는 결코 쏘피에게 위안을 주지 못했다.

지인들에게서 쏘피가 얻은 것은 실망이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우의를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한 후 쏘피에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로 결심한다. 결국 자신의 거처를 옮기려 결단하고 자신의 심장을 띠게 했던 링지스조차도 멀리하려 결단한다. 육체는 간절히 링지스를 위하여 잠깐 들른 링지스와의 시간을 아깝게 여길 만큼 애뜻한 감정으로 배웅하지만 자아를 찾지 못한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이어갈 수 없었다. 이러한 개인주의적 경향은 그녀가 겪고 있는 내심의 갈등을 밖으로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쏘피는 통속적인 세태 앞에서 웃기를 원치 않았고, 오염된 사회에서 자아를 지키려 하였다. 결코 세속과 야합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91) 丁玲; 《丁玲全集》, 第3集, 河北人民出版社, 2001年, 42页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낀 쏘피는 아름답게 죽는 길만이 자아를 찾는 길이라 생각한다. 스스로 자신에게 절망을 주었다고 인정하면서 서산으로 떠날 준비를 한다.

때때로 진정한 사랑을 갈구하지만 포기하고 색에 유혹되어 타락에 빠지기를 원하기도 한다. 애정은 추구하면 할수록 더욱 느끼게 되는 환멸, 실망으로 인생의 의의에 회의감을 느끼게 되어, 진정한 자아를 찾지 못한 채 한탄하며 마지막 구절을 적었다.

但是我不愿流在北京，西山更不愿去了，我决计搭车南下，在无人认识的地方，浪费我生命的余剩，因此我的心从伤痛中又兴奋起来，我狂笑的怜惜自己，悄悄的活下来，悄悄的死去，啊！我可怜你，莎菲！⁹²⁾

그러나 나는 베이징에 있고 싶지 않고, 쑤산에는 더욱 가고 싶지 않다. 나는 차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나의 나머지 생을 낭비하기로 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은 상하고 아픈데 다시 흥분이 되기 시작했다. 나는 미친 듯이 웃으며 자신을 동정했다.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죽어가야 하다니, 불쌍한 쏘피!”

쏘피는 삶에 대한 열망과 이상의 추구를 간직하면서, 속인들과의 화합을 거부하였다. 그녀 자신은 어두운 사회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비관, 낙담하여 스스로 과멸되어 갔다. 쏘피는 인격의 독립과 해방을 원하였지만 봉건적인 시대 상황을 쏘피의 이상을 따라오지 못하였다. 결국 이 사회에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 시킬 수 없음을 알고 그런 체도에 타협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삶(생명)조차 포기함으로써 비로소 자아를 찾는다.

딩링이 사회적 반항과 사회적 윤리적 규범에 개의치 않고 창작에 초점을 두는 자전적 소설을 발표하고 5.4시기 지식인들을 독자로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작품이 반전통적인 자아의 기록으로서 일종의 자유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물론 성애를 노골적으로 그것도 자신의 경험을 쓴 자전적 소설이 동시대의 향토 소설과 비교해 볼 때, 계몽적 개혁의지와 저항정신을 상실하고 타성적이고 퇴행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딩링은 현대소설의 형성기에 계몽주의 문학에 나타난 한계를 극복하는 ‘자아의식’의 서사전략을 택함으로써 창작의 자유의지를 확보하고 한 단계 성숙한 현대소설의 길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92) 丁玲;《丁玲全集》第3卷,河北人民出版社,2001年,78页

제 5 장 결 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작가 덩링이 창작한 쏘피는 중국의 봉건제도에 대항하는 자아가 강한 지식 여성이다. 쏘피는 5.4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여성 변화의 대표주자이다. 쏘피는 일반적인 여성과는 전혀 다른 결혼관과 연애관을 가지고 있다. 특히 남자에 대한 성적 충동을 직접적이면서 솔직하게 표현하는데 그 당시 중국사회에서 또 문학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현상은 아니었다. 중국의 뿌리 깊은 봉건 제도 하에서 ‘성’은 남자만의 권리이고 여성은 남자의 전유물에 불과했다. 쏘피의 출현은 가히 충격적이었고 여성성에 대한 권리 주장이라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소피처럼 대담한 여성 형상이 당시의 문학 작품에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소설이 발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작품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덩링 작가의 심리적 표현 방식의 우월성이다. 여류 작가의 신분으로서 상당한 대담성과 또 남성 작가들이 부족하기 쉬운 섬세함으로 쏘피의 복잡 미묘한 감정의 순간들을 아주 부드럽게 묘사하여 쏘피의 마음의 흔들림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러한 창작은 덩링만의 작가적 역량에서 나온 것으로, 중국 여성 문학에서 독특한 예술적 형상의 표현이다. 이런 이유로 쏘피는 중국 여성 작가들의 창작에 깊은 영향을 끼쳤으며 덩링이 중국 현대문학사와 여성문학에 공헌한 바 크다 하겠다.

《쏘피 여사의 일기》에 대한 평가를 종합해보면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긍정적 평가는 5.4 이후 중국사회의 새로운 흐름에 맞춰서 반봉건적인 사고로 변화하기를 원치 않는 기존 계층에 도전한 점이다. 거기에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과 여성들의 문제를 들고 나와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의 보편 권리 특히 성에 대한 불공평을 지적하며 사회의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부정적 평가로는 작가 덩링이 철저한 개인주의자이며, 몰락한 퇴폐 부르조아 계급의 화신이라고 하였다. 작품 중의 쏘피에 대하여서도 끔찍한 허무주의적 개인주의자라고 하면서 젊은

지식 여성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불건전한 심리상태를 묘사한 작품이며, 탈사회적 절망적 개인주의의 무정부적 경향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 쏘피는 사랑을 떠나 죽음을 준비한다. 스무 살의 폐병 환자인 쏘피가 어떻게 성장하고 결실을 맺는가를 보여준다. 쏘피의 성적 욕망은 끊임 없이 점증되거나 또 계속해서 억압된다. 전체적인 구조를 정리해 보면 ‘욕망-억압-욕망-억압-욕망-충족-죽음’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욕망이 있는 상태에서 충족되지 않는 동안 쏘피는 살아간다. 그 충족의 끝을 죽음으로 귀결 짓는다. 죽음은 육체의 소멸이지만 영혼의 새로운 탄생이다. 소녀는 죽어서 숙녀로 태어나 더 이상 성적 욕망을 사랑이라 착각하지 않고 자신의 사랑을 타자화 하고 고결한 상태로 만든다. 《쏘피 여사의 일기》는 사랑, 여성의 성적 욕망, 여성의 자아를 찾아 가는 자전적 성장 소설이다.

작가 덩링은 충격과 충돌의 배후에서 한명의 혁명가로서 겪은 고난과 열정을 작품 중에 불태운다. 지식인으로서의 고난과 모순은 여류작가의 불우함과 고생스러움을 초래하여 덩링 문학 창작의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덩링의 역사는 곧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 현·당대 문학의 역사라 할 수 있다. 그 중에 《쏘피 여사의 일기》는 가장 의견이 분분하고, 시대의 흐름과 중국 현·당대 소설의 흐름을 바꿔 놓은 작품 중에 대표작이라 볼 수 있다.

參考文獻

- 袁良駿;《丁玲研究資料》天津人民出版社, 1982年, 3月版
- 《台港, 海外丁玲研究巡禮》, 新文學史料, 1991年, 第3期
- 陳榮毅;〈丁玲研究的兩個問題〉, 《天津師範大學》, 1981年, 第3期
- 陳惠芬;《近年丁玲研究述評》, 文學評論, 1985年, 第6期
- 林僞民;《丁玲小說研究60年述評》, 武陵學刊, 1991年, 第1期
- 陸文棻;《新時期丁玲研究的回顧和展望》, 文史哲, 1995年, 第5期
- 韓毓海 主編《20世紀的中國學術位与社會》, 山東人民出版社, 2001年
- 宗誠 著《丁玲》, 中國文聯出版公社, 1998年
- 茅盾;〈女作家丁玲〉〈丁玲研究資料〉1982年, 天津人民出版社
- 馮雪峰;〈丁玲研究資料〉大眾文藝出版社, 2001年,
- 張永泉;〈從黑暗中尋找光明的女性-莎菲形象的評價〉, 《文學評論》, 1987年
- 嚴家炎;〈開拓者的艱難跋涉-論丁玲小說的歷史貢獻〉, 《文學評論》, 1987年
- 《五四的誤讀》, 福建教育出版社, 2000年
- 錢謙吾;《丁玲的母親》, 選自《丁玲研究資料》天津人民出版社, 1982年 第260頁
- 殷國明, 張芝紅 著《對女性人格美的呼喚》, 《中國現当代小說中的知識女性》, 廣東高等教育出版社, 1990年
- 張炯, 王淑秧;《朴素, 真誠, 美;丁玲的作論》, 北京人民文學出版社, 1998年
- 楊義 著《中國現代小說史》, 人民文學出版社, 1993年
- 張紅靜;《論莎菲女士的日記的文体特徵》, 語文學刊, 2010年, 第5期
- 王宏民;〈莎菲女士的日記生命美學〉
- 王王宝;〈論莎菲女士的日記的唯美-頹廢傾向〉
- 張薇;《論莎菲与多余人-〈莎菲女士的日記〉主人公形象分析》, 安慰文學, 2013年
- 楊桂欣;《觀察丁玲, 丁玲女士》, 大眾文藝出版社, 2000年
- 孟悅, 戴錦華;《浮出歷史地表》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3年
- 周良沛;《丁玲轉》, 北京十月文藝出版社, 1993年
- 張租林, 李灵源;《我的母親丁玲》, 遼寧人民出版社,

- C,P, 安德林; 《父親難當》文韜, 文恬擇, 中國婦女出版社, 1989年
- 陽輝編著; 《單親家庭-, 現代生活新熱點》, 中國紡織出版社, 2001年
- 王曉明; 《潛流与湮渦-論20世紀中國小說家的創心理障礙》,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1年
- 王富仁; 《中國現代主義文學論》, 《20世紀中國文學史論》, 東方出版中心, 2003年
- 王雪英; 《論丁玲的小說》《上海文論》, 1998年
- 丁玲; 《我的生平与創作》四川人民出版社, 1982年
- 丁玲; 《我的自白》《死之歌》《母親》《魍魎世界》大象出版社, 2006年
- 丁玲; 《過年》《丁玲全集》《向警予向志留給我的印象》《我在霞村的時候》河北人民出版社, 1984-1985年, 2001年
- 丁玲; 《一个眞詩人的一生-記胡也頻》河北人民出版社, 2001年
- 丁玲; 《回憶潘漢年同志》湖南人民出版社, 2001年
- 이선이; 《딩링》한울아카데미 2015년
- 김경남; 〈딩링의 사랑과 문학〉 2002년 2월
- 안유경; 〈질병서사의 관점에서 본 딩링의 쏘피의 일기〉 2016년 4월
- 이보경; 〈문학치료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2007년 4월
- 이국봉; 〈상해시기 딩링의 문학 창작활동과 근대의 경계〉 2013년 2월
- 봉인영; 〈환영과의 전쟁-딩링의 연안시기 소설서사 공포와 이모티브〉 2014년 8월
- 딩링작 김미란역 《내가 안개마을에 있을 때》창비세계문학 2012년 10월
- 딩링작 김순진역 《쏘피 여사의 일기》다락원 2005년 3월
- 조홍선의 32명; 《중국 현대문학과의 만남》동녘 2006년
- 김영구.김진공 저 《중국현대문학론》방송통신대출판부 2012년
- 김은희; 丁玲의 《莎菲女士의日記》다시 읽기 《중국현대문학》2011년 122-145쪽
- 민혜경; 丁玲의 《莎菲女士의日記》에 나타난 창작특색. 《중국현대문학》1997년 253-272쪽
- 박준식; 丁玲의 《莎菲女士의日記》연구-主人公 莎菲의 人物特性을 中心으로-1991년
- 강경구; 郁達夫 〈沈淪〉探索 2012년
- 김경석; 〈창조사 自傳小說에 대한 몇가지 再論〉
-郁達夫의 〈沈淪〉을 중심으로- 2012년

